

February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6 02 vol.290



Cover Story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Concerti Romani

세계의 공연장 코벤트가든과 RAH 로열 앨버트홀, 그리고 웨스트엔드

축제속으로 고고 2016 평창겨울음악제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9 10 11 12 1

PYOTR IL'YICH TCHAIKOVSKY

Bⁿ 비엔그룹 · 대선주조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2016 월빙콘서트 ①

러시아 음악 여행

차이코프스키 편

PROGRAM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제1번 작품71a
"The Nutcracker" Suite No.1 op.71a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中 제1악장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Fantasy Overture "Romeo and Juliet"

2016. 2. 26. 금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정인혁



해설 정희정



바이올린 김상군



객원악장 이석중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협찬 Bⁿ 비엔그룹 · 대선주조 NH 부산교통

문의 607-3106 (홍보팀), 607-3144~5 (공연운영팀)

입장권 균일 10,000원 (*지정좌석제)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교향악단 2016 신춘음악회

새봄의 클래식

2016.3.10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주폐 「경기병」 서곡
 김영식 달빛이 흐르는 전경
 임금수 강 건너 봄이 오듯
 라라 그라나다
 로시니 피렌체의 꽃파는 아가씨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中 아다지오
 레하르 「유쾌한 미망인」 中 “입술은 침묵하고”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
 트리치-트라치
 천둥과 번개
 관광열차
 봄의 소리



지휘 이병욱



소프라노 이재란



테너 조윤환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06(홍보팀)
 607-3144~5(공연운영팀)
 607-3151(정기회원)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서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음악회 130 ans d'amitié, l'Année Franco-Corée

프랑스 실내악의 밤 Rencontre musicale Franco-Coréenne à Busan

2016년 2월 23일 7:30 P.M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파리 국립 음악원 교수진 초청
세계 정상급의 프랑스, 한국 음악인의 만남



PIANO
OLIVIER GARDON



PIANO
변애영



VIOLIN
OLIVIER CHARLIER



VIOLIN
한소라



CELLO
PHILIPPE MULLER



FLUTE
이소영



FLUTE
PHILIPPE BERNOLD



VIOLA
김가영

뮤지컬

시골에서 가장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2014년 최고의 웃음과 감동!!



2016. 2. 24(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66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과 함께 하는

Friendly Concert



2016. 2. 25(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출연 |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영도청소년합창단

입장료 | 균일 1,000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607-3108, 607-3146

서둘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공연있는 날에 한함)

C o n t e n t s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tory⁺

- 08 커버스토리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Concerti Romani
- 12 세계의 공연장
코벤트가든과 RAH 로열 앨버트홀,
그리고 웨스트엔드
- 16 축제속으로 고고
2016 평창겨울음악제
- 18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문화
아침이 아름다운 집
-법기리 무용가의 집 '단아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무지크바움 음악홀
- 24 테마가 있는 여행
역사의 섬 대마도로 떠나는 힐링여행

Boards Inside⁺

- 30 프리뷰
- 38 리 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Center News⁺

- 4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50 새로 나온 책
- 51 새로 나온 음반
- 52 스페셜 무비
- 53 스페셜 이벤트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16년 2월호 통권 290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이승호 편집인 손금숙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16년 1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부산에 오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Concerti Romani

2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전 세계가 사랑하는 ‘우리시대의 살아있는 신화’ 이 무지치가 2월 3일 부산을 찾는다.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The Musicians)’을 뜻하는 이 무지치는 지난 1952년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촉망받는 음악인들로 창단된 후 지금까지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실내악의 섬세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완벽한 하모니로 수식어가 필요없는 세계 최고의 실내악단으로 사랑받아왔다.

창단 당시 6개의 바이올린과 각각 2개의 비올라와 첼로, 더블베이스와 하프시코드로 구성된 독창적인 챔

버 오케스트라이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지휘자 없는 앙상블로 첫 발을 내딛은 이 무지치는 창단 그 해인 1952년 3월 30일,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열린 공식 데뷔무대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데 이어 그 해 베니스 음악제, 영국 에딘버러 음악제 등 유럽의 저명한 음악제에 참가해 그 연주 실력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급부상했다. 그 당시 세기의 지휘자였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그들의 연주를 들은 후 기자와 음악관계자 앞에서 이 젊은 연주단체에 열광하며 '브라보! 음악은 죽지 않는다'라고 쓴 자신의 사진을 헌정하면서 이 무지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이 무지치는 1950년대 초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음악가 비발디와 그의 '사계' 전곡을 처음 소개하면서 18세기 이태리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다. 비발디의 걸작들을 세계 최초로 레코딩해 2천 5백만장이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했던 이 무지치는 특히 비발디 '사계'를 가장 완벽하게 연주한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까지 8천만장의 음반을 판매했다. '사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이 무지치 '사계'는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의 '베토벤 교향곡 5번'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반으로 꼽히고 있다. 비발디의 '사계'를 비롯해 이 무지치가 발표한 30여 종의 음반은 그동안 1억 5천만장이라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살아있는 전설'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올해로 창단 64주년을 맞아 현재까지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무지치는 완벽한 하모니,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 매너로 전 세계무대에서 매 공연마다 기립박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무지치는 그동안 부카레스트 'G Enescu' 국제음악제, 부에노스 아이레스 콜론극장,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부다페스트 봄축제 'Spring Festival', 도쿄 산토리홀, 오페라 시티, 빈 뮤직페라인, 베를린 필하모닉홀, 바르셀로나 음악당, 서울 예술의전당, 보스턴 심포니홀, 상하이 콘서트홀, 베이징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세계 유수의 연주회장과 주요 국제음악제의 정기적인 초대 연주자로 그 열정적인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긴 역사를 가진 만큼 이 무지치와 함께한 유명 연주자들도 많



다. 그 동안 펠릭스 아요를 리더로 프랑코 탐포니, 브루노 지우라나, 로베르토 미첼루치, 살바토레 아카르도, 마리아 테레사 가라티, 루치오 부카렐라 등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이 이 무지치를 만들어왔으며 70세를 정년으로 원년멤버들이 은퇴하자 현재는 악장인 안토니오 안셀미를 비롯해 새로운 실력가들이 이 무지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실내악단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무지치는 지난 1975년 첫 내한공연 이후 열정적인 한국관객에 매료되어 거의 매년 한국을 찾고 있다. 매번 내한공연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이 무지치는 올해도 그 명성 그대로 완벽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2016년 새해의 희망을 들려줄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곡들로 관객들과 만난다. 콘체르트 그로소(합주 협주곡)라 불리는 바로크시대의 독특한 기악형식을 완벽하게 자리 잡게한 코렐리와 카스트루치, 발렌티니 등 그의 제자들이 이룬 로마학파의 작품을 통해 17세기 이탈리아 음악의 황금기를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그야말로 수식어가 필요없는 비발디 '사계'를 그 명성 그대로 감동적인 연주로 들려준다.

2

2016 FEBRUARY

CULTURAL SCHEDULE

청령海 부산



인터넷 예매



공연일정

SUNDAY	MONDAY	TUESDAY
	1	2
7	8	9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16 설맞이 국악 한마당' 17:00 무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05, 3143)</p>		
14	15	16
		<p>중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김태훈(010-8728-1214)</p>
21	22	23
<p>소 에꼴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6:00 무료/에꼴음악학원(611-8889)</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음악회-프랑스 실내악의 밤' 19:30 5만원·4만원·3만원·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p>
28	29	
<p>소 제6회 노경희 클래스의 음악이야기 15:00 무료/노경희(010-4559-0423)</p>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제15회 차이코프 스키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19:30 6만원·5만원·4만원·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5, 3100)</p>	
	<p>소 열정넘치는 항상 음악회 19:30 무료/조한경(010-2475-6332)</p>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3		4		5		6	
<p>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Concerti Romani' 19:30 VIP 6만원·R석 5만원·S석 4만원·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p>						<p>소 2016 예감 뮤지컬 콘서트 17:00 무료/예감엔터테인먼트(010-4563-3969)</p>	
10		11		12		13	
						<p>중 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19:00 무료/김태건(010-3879-2487)</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금관5중주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17		18		19		20	
		<p>중 제12회 예원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춤을 추다' 19:30 균일 1만원/예원회(010-4871-9288)</p>		<p>중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남구청 문화체육과(607-4064)</p>		<p>중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010-4842-6688)</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24		25		26		27	
<p>중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식구 를 찾아서' 19:30 5만원·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66, 3100)</p>		<p>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19:30 균일 1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08, 3146)</p> <p>소 베이스 최철 독창회 19:30 초대/최철(010-8804-0063)</p>		<p>중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I '러시아 음악여행 -차이코프스키 편'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06, 3144~5)</p>		<p>중 부산볼런티어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사람의 노래, 바람의 소리' 17:00 무료 부산볼런티어윈드앙상블(011-574-0423)</p> <p>소 토요일상설무대-재즈밴드 러브레터 16:00 선착순 무료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5)</p>	
				<p>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http://culture.busan.go.kr을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하십시오. 			



로열 앨버트홀

세계 최고의 공연도시 런던 LONDON 코벤트가든과 RAH 로열 앨버트홀, 그리고 웨스트엔드

글·사진 이상훈 드림원정대 대표

무려 다섯 개의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가진 도시, 매년 25만명의 청중이 즐기는 세계 최대의 음악축제 PROMS 프롬스. 로열 오페라단과 발레단이 상주해 있는 코벤트가든 그리고 뮤지컬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사이공이 만들어진 웨스트엔드까지... 바비칸 센터, 사우스뱅크 센터, 코벤트가든(로열오페라하우스), 로열 앨버트홀 그리고 웨스트엔드의 무수히 많은 뮤지컬 극장들, 공연 예술의 전 장르에 걸쳐 이만큼 많은 문화저변과 연주단체를 보유한 도시가 또 있을까?

이번 호에는 인구 8백만이 넘는 서유럽 최고의 도시, 과거 무수히 많은 식민국가를 두었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었던 영국연방 The Commonwealth의 수도 런던의 주요 공연단체와 공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코벤트 가든(내부)



코벤트 가든(외부)

▣ 코벤트가든(로열오페라하우스)

지난달 한국인 바리톤 사무엘 윤(윤태현)의 로열오페라하우스 데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도 '토스카'의 스키타 역으로 말입니다. 상대는 자타공인 세계정상급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사실 그는 독일 오페라 무대에서는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3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개막작에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 주역으로 당당히 무대에 서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전 사석에서 15/16시즌 런던 로열오페라하우스 무대에서의 데뷔일정을 그에게 들었을때 비로소 세계 오페라무대에 우뚝 섰구나 하고 박수칠 수 있었습니다. 로열오페라하우스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오페라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코벤트가든 Covent Garden이라는 애칭의 로열오페라하우스는 1732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해 후 헨델의 오페라를 상연하기 위해 왕실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국의 대표적인 극장이 되었습니다. 이 극장에는 로열 오페라단(코벤트가든 오페라단)과 로열 발레단이 상주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열 오페라단은 게오르크 솔티, 콜린 데이비스와 같은 지휘자의 손을 거치며 세계 정상급 오페라로 우뚝 섰지만 그 시작은 영어로 된 오페라만을 상영할 계획으로 영국과 영연방의 재능있는 가수들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브리튼, 랄프 본 윌리엄스 같은 영국 작곡가들의 작품이 주요 레퍼토리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작곡가들로 확장되면서 지금은 밀라노 라 스칼라, 빈 슈타츠오페(국립극장)와 더불어 오페라 가수라면 누구나 한번쯤 그리는 꿈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1957년 왕실 현장을 받고 창단된 로열 발레단 역시 코벤트가든을 거점으로 한 세계적인 발레단 중 한 곳입니다.



Big 5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한 도시에...

앞서 언급한대로 LSO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필두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까지 런던은 한 도시 안에 무려 다섯 개의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매 시즌 공연되는 도시입니다. 이 중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와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82년 문을 연 바비칸센터 Barbican Center에서, 나머지는 템스강 남쪽에 위치한 사우스뱅크센터 Southbank Center 내 로열 페스티벌홀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들 중 선두주자는 단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1904년 런던 퀸즈홀(1941년 전쟁으로 파괴)에서 창단한 이 관현악단은 Big 5 중 가장 오래된 앙상블입니다. 앙드레 프레빈,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을 거쳐 얼마전까지는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993년부터는 영국 예술위원회가 런던 심포니를 후원, 런던의 오케스트라들 중 유일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오케스트라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 두차례의 그래미상 수상, 2000년도부터는 독립 레이블인 LSO라이브를 만들어 바비칸 센터 음악회를 담은 음반들이 25만장이나 팔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1930년 세계 최초 방송교향악단으로 출발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콜린 데이비스, 피에르 불레즈 등을 거쳐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우뚝 섰습니다. 현재는 BBC 방송국의

재원으로 바비칸센터 내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뒤 토마스 비침이 조직한 관현악단으로 앞서 창단한 BBC 심포니와 런던 심포니와의 계약이 실패하자 독자적으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게오르그 솔티, 클라우스 텐슈테트 등이 이 오케스트라를 키워왔으며 빈 국립가극장의 음악감독이었던 프란츠 빌저 피스트 그리고 쿠르트 마주어로 이어집니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1945년 음반 레이블인 EMI 소속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로 창단합니다. 2차대전 이후 팽창한 클래식 시장을 염두에 둔 제작자 월터레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카라얀을 만든 것도 필하모니아와의 인연입니다. 1952년 카라얀이 이끄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독일 투어연주에 반한 베를린이 3년 뒤 그를 모셔갔기 때문입니다. 이후 베를린 필과 카라얀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교향악단을 세계적으로 키운 건 역시 오토 클렘페러의 공이었습니다.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97/98시즌부터 로열 페스티벌홀의 상주오케스트라가 됩니다. 당초부터 레코딩 오케스트라로서 활약을 시작하였기에 많은 명반을 제작하였습니다.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런던의 Big 5 중 가장 늦게 설립된 교향악단이지만 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813년 오케스트라 음악을 보급하기 위해 창립된



사우스뱅크센터 내 로열 페스티벌홀



웨스트엔드 퀸즈극장

런던 필하모닉 소사이어티가 그 전신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런던필하모닉을 만든 토마스 비침이 1946년 데이비스 극장에서 창단음악회를 가집니다. 이 관현악단은 런던을 본거지로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영국 각지를 순회함으로써 영국 국립관현악단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의 오케스트라를 언급하면서 토마스 비침이라는 지휘자가 여러번 언급되었는데 런던 필하모닉은 그의 이름을 딴 비침교향악단이 전신이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창단연주를 지휘하였고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재건합니다. 불과 십수 년 사이에 무려 세계의 관현악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셈이죠.

RAH 로열 앨버트홀과 프롬스 PROMS

런던 하이드파크 남쪽 사우스 켄싱턴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앨버트 공이 건설한 복합공간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앨버트 기념비 옆 공공 콘서트홀이 건설되는데 바로 로열 앨버트홀입니다. 1871년 개관한 이 홀은 41미터의 돔 아래에 무려 8천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O2 아레나와 더불어 런던의 빅 콘서트는 대부분 이곳에서 개최되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PROMS 프롬스(프롬나드 콘서트)입니다. 실제 런던의 프롬나드 콘서트는 17세기부터 존재했는데,

1678년 한 목탄상인이 그의 창고에서 음악회를 조직하면서 부터입니다. 지금과 같은 프롬스로 발전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이며 1941년부터 프롬스는 로열 앨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1960년에는 BBC 음악감독이었던 윌리엄 글록이 프롬스를 같이 맡게 되면서 BBC 심포니의 지휘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120회 BBC 프롬스가 열렸던 2014년의 경우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웨스트엔드에서 만나는 뮤지컬

뉴욕에 브로드웨이가 있다면 런던에는 웨스트엔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런던에서도 가장 변화한 상업지구이며 오락지구입니다. 이 중 중심가인 피카딜리 서커스와 라이체스터 광장 인근으로 수십 여개의 뮤지컬 극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 약간 그 성장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카멘론 매킨토쉬와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같은 제작자, 작곡가들에 의해 1980~90년대 최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30년째 공연되고 있는 퀸즈극장의 레미제라블, 프린스 에드워드 극장에는 최근 흥광호, 조상웅 등의 한국배우들이 출연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미스사이공 리바이벌 버전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Made in U.K. 빌리 엘리어트, 마틸다 등의 작품은 연일 매진으로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원 속에 펼쳐질 음악의 대향연 2016 평창겨울음악제



나윤선 ©나승열

한여름의 세계적인 음악제로 12년간 명성을 이어온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재즈와 클래식 어우러지는 ‘평창겨울음악제’를 개최한다.

‘설원 속에서 펼쳐지는 고품격 클래식과 모던 재즈의 뜨거운 무대’라는 슬로건 속에 펼쳐지는 ‘2016 평창겨울음악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기원을 위한 겨울문화 축제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그랜드볼룸에서 펼쳐진다. 평창겨울음악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지난 2010년부터 대관령국제음악제와 인연을 맺어온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자매가 예술감독을 맡아 품격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음악제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는 한국 재즈의 자존심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의 무대로, 2월 25일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펼쳐진다. 모던탱고와 현대재즈, 클레즈머 등 다양한 재즈의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재즈플러스 콘서트’의 첫 무대이기도 한 이번 무대에서는 유럽을 홀린 매혹적인 목소리 나

윤선과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올프 바케니우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아름다운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은 프랑스 ‘L’Academie du Jazz’, 독일 ‘Echo Jazz’, ‘Jazz Gold Award’ 등 유럽의 각종 재즈 어워드에서 최고의 아티스트상, 올해의 아티스트상 등을 수상했으며 특히 2009년에는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를 수훈했다.

26일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재즈플러스 콘서트’ 두 번째 무대는 유대인의 전통음악인 ‘클레즈머’의 선두주자이자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지닌 데이비드 올로프스키 트리오의 무대로 꾸며진다. 데이비드 올로프스키 트리오는 클라리넷, 기타, 더블베이스로 구성된 팀으로, 클레즈머의 현대적 사운드와 대담한 즉흥 연주를 들려준다. ‘재즈플러스 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27일과 28일 펼쳐지는 모던 탱고의 거장 카렐 크라엔호프(반도네온)와 후앙 파블로 도발(피아노)의 듀오무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와 함께 반도네온과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남미의 열정적인 선율을 만날 수 있다.



데이비드 올로프스키 트리오 ©Christian Debus



카렐 크라엔호프와 후앙 파블로 도발



바리톤 아리운바타르 간바타르



피아니스트 뤼카 드바르그

음악제 기간동안 26일과 27일 두차례 열리는 '클래식 콘서트'는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2015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들의 무대로 마련된다. 2015년 국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남성 성악부문에서 우수한 몽골 출신의 바리톤 아리운바타르 간바타르를 비롯해 첼로부문 1위 수상자 안드레이 이오누트 이오니치, 피아노 부문 4위이자 모스크바 평론가협회 투표 최고상 수상자인 뤼카 드바르그, 바이올린 부문 4위 수상자 클라라 주미 강, 첼로 부문 5위 수상자 강승민 등 라이징 스타들이 출연해 독주와 실내악(26일), 지휘자 최수열이 이끄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27일)로 꾸며진다. 연주 시간만 2시간 30분이 넘는 마라톤 무대로, 벌써부터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첼리스트 안드레이 이오누트 이오니치와 피아니스트 뤼카 드바르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은 2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제15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에 참가할 예정이라 부산음악 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주요 일정

- 25일 오후 9:00 알펜시아 콘서트홀
재즈 플러스 오프닝 콘서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기타리스트 울프 바케니우스'
- 26일 오후 5:00 알펜시아 콘서트홀
클래식 콘서트 1
- 26일 오후 9:30 드래곤밸리 그랜드볼룸
재즈 플러스 콘서트
'데이비드 올로프스키 트리오(David Orlowsky Trio)'
- 27일 오후 5:00 알펜시아 콘서트홀
클래식 콘서트 2
- 27일 오후 9:30 드래곤밸리 그랜드볼룸
재즈 플러스 콘서트
'카렐 크라엔호프 & 후앙 파블로 도발 듀오 With 고상지'
- 28일 오후 12:00 드래곤밸리 그랜드볼룸
재즈 플러스 정오 콘서트
'카렐 크라엔호프 & 후앙 파블로 도발 듀오 With 고상지'

기 간 2월 25일(목)~28(일) **장 소** 평창 알펜시아 / 용평리조트
입장료 콘서트홀 R석 7만원, S석 5만원, 후원석 25만원
 그랜드볼룸 자유석 2만 5천원(26일~27일), 자유석 2만원, 후원석 25만원(28일)
문 의 평창겨울음악제 033-240-1360, www.musicpyeongchang.com



아침이 아름다운 집 법기리 무용가의 집, ‘단아(典雅)’

글·사진 강기표

건축가 /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인제 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법기리’는 한적한 농촌 마을이다. 양산 군지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나온 산줄기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법기마을은 1860년(철종 11) 이전에는 ‘본의곡’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는 ‘의(義)를 본으로 하는 곳이다’라는 뜻인데 관련 문헌은 없으나 어느 때인지 의(義)와 법(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 살게 되면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인 1932년에 축조된 ‘법기수원지’는 비밀의 정원이다. 80년 가까이 문을 꽂꽂 닫았다가 지난 2011년 개방하여 어느새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었다. 수원지에 들어서면 높은 히말라야삼목(개잎갈나무)이 압도한다. 다음에 편백이 이어지고 빛나무, 추자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이 맞이한다. 숲길을 지나 124개의 하늘계단을 오르자 수원지가 나타난다. 푸름의 수원지와 나무숲의 평화로움은 도시의 허파와 같다.



거실과 테라스, 마당과의 확장

땅은 집의 어머니

건축 설계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한다. 땅은 집의 어머니와 같아서 땅이 갖고 있는 형태, 높낮이, 방위, 도로와의 관계 등 물리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땅에 새겨진 삶, 문화, 맥락 등 인문적 연역성을 안고 있다. “우리말 ‘터무니’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터에 새겨진 무늬’라는 뜻이다. ‘터무니없다’는 말은 근거 없고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놀라운 의미다. 적어도 우리 선조가 가진 삶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땅에 새겨진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터무니없는 삶이란 땅과 무관한 삶이다.”라고 건축가 승효상¹⁾은 그의 책 ‘지문’에서 쓰고 있고 땅 위에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새긴 무늬를 지문(地文)이라 하였다. 땅이 어머니라면 땅과 관련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는 아버지가 아닐까?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건폐율²⁾, 용적률³⁾ 등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제약한다. ‘법거리’는 오랫동안 수자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최근 법규가 다소 완화되어 주택의 신축이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주택 외의 용도는 제한을 받고 있다. 당초 건축주는 카페와 무용 공연장을 겸한 주말 주택을 원하였으나, 수자원보호구역에 따른 하수처리의 문제로 카페의 용도는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플딩도어 개폐 전 거실



플딩도어 개폐 후 거실



연습공간으로 이용하는 거실



공연공간으로 확장된 거실

마당, 돌담 그리고 마당의 우물

법기리 초입에 위치한 ‘단아’는 한국 무용가 김연희⁴⁾의 주말주택이자 공연공간, 연습공간이다. 연습과 공연의 역할을 하는 거실과 작은방 하나와 주방, 화장실로 간략한 평면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땅은 수십 년간 한 채의 건물과 마당, 돌담 그리고 마당의 우물로 시골의 삶을 담고 있었다. 아래로는 법기수 원지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냇가 흐르고 감나무가 이정표같이 서있는 매우 불규칙한 땅이다. 오래된 돌담과 우물 그리고 불규칙한 지형은 옛것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집은 놓였다.

아날로그적 무대

건축은 면(面)으로 구성된다. 면은 빛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빛을 반사하기도 한다. 농촌 마을 아침의 고운 햇살은 단순하게 구성된 공간 속으로 한껏 받아 들인다. 백색의 구조색과 연한 녹색과 연한 주황

색은 단조로운 빛의 벽면에 표정을 주고 있다. 또한 면은 바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며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단아’는 박스에서 보이는 여섯 개의 면으로 구성되어있고 내부를 가르는 다섯 개의 벽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성이다. 공연장의 역할을 하는 거실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출입구와 옷방이, 좌측에는 방과 화장실, 주방이 위치하고 있다. 거실은 동쪽으로 향하며 마당과 함께한다.

폴딩도어로 구성된 거실의 창은 전체를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 문이 모두가 열리면 거실 앞 목재 테라스와 짙은 회색의 가벽은 공연 무대로 변화되고, 마당은 객석으로 변신하게 된다. 1970년대의 흑백텔레비전의 접이문을 열고 방송을 보듯 아날로그적 무대가 된다. 공연이 없는 평소에는 연습 무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가족을 위한 거실로도 사용된다. 우리네 대청의 현대적 변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쪽으로 높고 서쪽으로 낮은 경사지붕으로 형성된 박스 형태는 무대로서의 프로시니엄을 명확히 해주며 뒷집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폴딩도어 위의 또 다른 고



좌측에서 본 전경과 보존된 우물



야경

창은 빛을 걸러주며 순화되어 들어오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건축에 있어서의 용도는 건축의 기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용도는 건축주의 삶이기도 하고, 수용자의 문화이기도 하다. 건축에서의 삶은 건축주 가치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글을 연재하며 김소춘 갤러리에 이어 나⁵⁾의 작품을 두 번째 소개하는 것 같다. 여러모로 모자란 작품이지만 단순함과 용도의 복합성으로 보아주었으면 한다.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문화〉는 2월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강기표님께 감사드립니다.

1) 승효상

승효상(承孝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빈 공과대학에서 수학했다. 저서로 〈빈자의 미학〉(1999), 〈비움의 구축〉(공저, 2005) 등이 있다. 그는 20세기를 주도한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빈자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두고 작업하고 있으며 김수근문화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여러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에서의 그의 작품은 구덕교회와 부산극동방송이 있다.

2) 견폐울

대지면적(건축 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3) 용적률

대지면적(건축 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연면적(지하층 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뺀 연면적)의 비율.

4) 김연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부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였고, 부산무용협회 감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김연희춤예술원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창작출연작품으로 〈갯마을, 여자 새 되어 울다〉 등 다수의 작품이 있으며, 〈중국 상해 아시아 댄스페스티벌〉,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대극장 김연희춤〉 등 다수의 공연활동이 있다.

5) 강기표

동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건축사사무소 ATRCHE ANP’를 운영하고 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회장을 거쳐 (사)한국건축가협회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제대학교와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있으며,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영화와 건축에 대한 강연과 임상수 감독 등 영화감독 초청 토크 콘서트를 수차례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40계단 문화관, 콩스버그 마리타 임코리아, 김소춘 갤러리 등이 있으며 부산건축대전 베스트상, 동래건축문화상 등 다수의 건축상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로부터 표창장을, 부산광역시로부터는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표창장을 받았다.



부산의 살롱문화를 이끄는

무지크바움 음악홀

음악애호가들의 사랑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고전음악감상실 무지크바움이 2016년 새해, 실내악 전용 음악홀을 개관하면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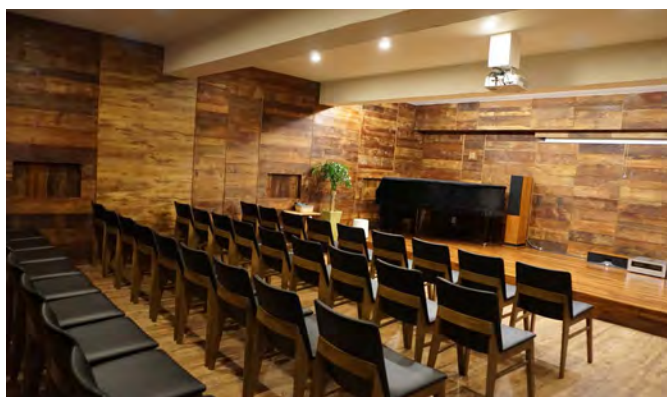
지난 2012년 3월, 국제신문사 인근에 문을 연 무지크바움은 클래식 매니아인 강경옥 씨의 오랜 꿈이 담긴 곳으로, 언제나 클래식 선율로 가득한 음악애호가들의 휴식공간이자 다양한 강좌와 음악감상회가 펼쳐지는 문화센터로 각광받아왔다. 특히 음악감상실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딛고 지난 2013년부터 다양한 살롱음악회를 개최해온 강경옥 씨는 전용 음악홀의 필요성을 실감하던 중 기존 무지크바움이 자리한 건물 2층이 빈다는 소식에 이전을 결심했다. 50석 규모의 소규모 음악홀이지만 제대로 된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내부 마감재에서부터 조명, 소품 하나하나 발품을 팔며 직접 꾸몄다는 강경옥 씨는 지난 1월 9일 개관 기념 갈라콘서트를 통해 참석했던 연주자와 관객들로부터 음악홀로서의 합격점을 받았다. 트럼펫터 박승훈, 프로젝트 앙상블 '숨블리', 피아니스트 정재은이 출연한 이날 개관 기념 갈라콘서트에서는 무지크바움을 찾은 관객들이 공연장에 다 입장하지 못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살롱음악회는 초창기만 하더라도 음악전공자들이 무대에 섰으나 이제는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연주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음악홀 개관과 더불어 큰 무대와는 차별화되는 살롱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강경옥 씨는 무지크바움을 앞으로 연주자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살롱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음악홀



과 더불어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 바로 카페공간. 연주가 끝나더라도 연주자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편안하면서도 아늑하게 꾸며놓았다. 앞으로도 살롱음악회를 통해 젊은 연주자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강경옥 씨는 클래식 뿐 아니라 재즈, 어쿠스틱 인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소개할 예정이다. 무지크바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둘째주 화요일,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클래식 인문학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을 운영하고 있다. 2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되는 ‘고음악 연주’ 제3강으로, 고음악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카운터테너 거장들의 연주세계를 탐구한다. 이밖에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화요일 오후 8시,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세 차례 고전음악 감상반을 운영하면서 클래식 초보자들의 입문과정 공간으로도 계속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음악감상실이 있던 지하는 부산시네마아카데미(대표 배정선)로 운영된다. 전시공간에서 영화상영, 인문학강좌까지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곳으로, 2월



부터 다채로운 주제의 인문학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2월 21일 미술평론가 최석태 씨가 진행하는 ‘한국의 예술가순례-조각가 권진규’를 시작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운성 교수의 ‘실험영화&비평’, 동서대학교 손현석 교수의 ‘영화와 음악’, 동의대학교 김이석 교수의 ‘단편영화&독립영화’, 대안학교 섬 김동규 대표의 ‘영화와 철학’에 이어 3월부터는 국제신문 박창희 대가자의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강의가 이어진다.

“무지크바움과 부산시네마아카데미 외에도 이 곳 일층에는 악기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가을에는 공연기획사가 입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실공히 앞으로 공연장과 문화센터, 문화예술 사랑방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살롱문화를 주도할 무지크바움의 앞으로의 여정에 음악애호가들의 기대가 모아진다.

문의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 10주년 기념

역사의 섬 대마도로 떠나는 힐링여행



미우다 해수욕장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2016년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6년 3월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로 첫발을 내딛은 후 그동안 2011년 2월 구제역 파동,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때를 제외하고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이면 정기회원들과 어김없이 테마여행을 떠났다. 특히 지난 2014년, 2015년 하반기에는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원으로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를 진행하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의 향기를 함께 누릴 수 있어 정기회원들의 호응이 매우 컸다.

테마여행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1월 테마여행지는 우리의 역사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본 대마도. 일본과 한국을 가르는 대한해협 사이에 자리한 대마도는 때문지 않은 청정해역과 풍부한 녹음으로 둘러싸인 산은 웅대한 자연의 신비로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여기에 600년 전 조선통신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이국땅에서 쓸쓸히 눈감은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와 애잔한 역사가 서려있는 덕혜옹주의 결혼봉축비 등 우리의 역사 유적들이 산재해 있어 역사탐방 여행지로도 인기가 높다. 이번 대마도 테마여행은 부산과 대마도, 후쿠오카



덕혜옹주 결혼봉축비



조선통신사비



아유모도시 자연공원

를 오가는 코비, 비틀 운항사인 (주)미래고속의 특별후원으로 진행됐다.

테마여행을 떠나는 1월 8일, 부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 이른 새벽부터 75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이 모였다. 테마여행을 시작하고는 처음 가는 해외여행인데다 1박2일 일정이라 그 어느 때 보다 회원들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이번 여행에는 10년 전 다섯 살 나이로 엄마 손을 잡고 테마여행에 참여했던 꼬마가 중학생이 되어 다시 참가해 10년이라는 세월을 실감케 했다. 특히 이번 대마도 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엄남이, 안재형 부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 조은경, 최윤희 씨가 동행하면서 대마도에서 펼쳐질 특별한 무대에 회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아침 8시, 대마도 여행을 함께 할 가이드 김현숙, 김인기 씨의 인솔로 탑승수속을 마친 후 드디어 대마도로 출항,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대마도의 행정중심지인 이즈하라에 도착했다. 대마도 첫 방문지는 구한말 애국지사였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가 자리한 수선사. 의병활동을 하다 74세의 나이로 대마도에 유배온 최익현 선생은 일본군이 제공하는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고 19일간의 단식 끝에 순국했다. 이후 선생의 넋을 기리고자 1986년 뜻 있는 유지들이 힘을 모아 수선사 뜰 안에 비를 세웠다고 한다. 수선사 인근에 위치한 식당에서 일본식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자연이 만든 신비한 계곡 아유모도시 자연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계곡 전체가 화강암으로 된 암반계곡인 아유모도시 자연공원은 ‘은어가 돌아오는 계곡’이라는 뜻처럼 맑은 물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아름다운 계곡이다. 같이 온 가족, 친구들과 정담을 나누며 계곡을 따라 산책을 마친 회원들은 조선왕조 최후의 황녀로 비극적 삶을 살아야 했던 덕혜옹주 결혼봉축비와 조선통신사비가 위치한 가네이시 성터로 향했다.



고종과 양귀인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덕혜옹주는 1931년 일본의 국악을 위해 대마도 도주의 아들인 소오타케유키(宗武志)와 정략결혼을 했으나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1955년 이혼, 쓸쓸히 지내오다 1962년 귀국한 후 창덕궁 낙선재에서 혼자 살다 1989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결혼봉축비는 그 당시 대마도 도주의 아들과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나 그 후 방치되다 지난 2001년 현지인들에 의해 복원되어 지금의 자리에 세워졌다.

덕혜옹주 결혼봉축비에서 5분 정도 걷다보면 조선통신사비를 만날 수 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이 일본에 파견했던 공식 외교 사절단으로, 조선통신사비는 지난 1992년 통신사 방문으로 이루어진 활발한 교류와 우호 관계를 21세기에 이어나가자는 의미로 세워졌다.

대마도 첫날 마지막 방문지는 대마도의 대표적인 신사인 팔번궁신사(八幡宮神社). 어부와 병사를 지켜주는 팔번신을 모시는 신사로 일본에서도 유명한 팔번궁신사는 일본인들이 삼한을 정복하고 임나본부 건설했다고 주장하는 ‘신공왕후’가 세웠다는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팔번궁신사 왼편에는 일명 마리아신사라고 불리는 금궁신사(今宮神社)가 자리하고 있다. 19대 대마도 도주의 부인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고니시 마리아’를 제사지내는 사당으로, 신사 입구에는 1,000년의 세월을 이겨낸 일본 제일의 녹나무가 세월을 안고 서있다.

팔번궁신사를 마지막으로 첫날 역사탐방을 모두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해산물, 육류가 풍부한 BBQ 특식으로 저녁식사를 끝낸 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관람을 위해 공연장소인 티아라몰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 조은경, 최윤희 씨가 들려주는 우리 전통음악과 민요,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곡, 팝송에서부터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엄남이, 안재형 부부의 오페라 아리아 및 가곡 등 다채로운 연주로 회원들 뿐 아니라 공연소식을 듣고 찾아온 대마도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 예정시간이었던 한 시간을 훌쩍 넘기고 저녁 9시 공연관람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내일 있을 일정을 위해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후 출항이라 여유롭게 진행될 예정이었던 둘째날 일정이 부산과 대마도를 오고가던 배가 고래와 부



팔번궁 신사

뒤틀리는 사고가 나면서 출항시간이 앞당겨져 급하게 변경됐다. 동이 채 뜨지도 않은 아침 7시, 호텔을 떠난 정기회원 가족들은 첫 일정지인 에보시다케 전망대로 향했다. 에보시다케는 ‘대마도의 하롱베이’라 불리는 아소만을 내려다볼 수 있어 대마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에보시다케 전망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신사임을 나타내는 5개의 도리이(鳥居)가 일렬로 서있는 와타즈미신사(和多都美神社)를 만날 수 있다. 풍어와 뱃길 안전을 기원하는 해신(海神), 토요타마 히메와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와타즈미신사는 3개의 토리가 바다 속에 세워져 만조에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독특한 구조이다. 특히 도리이 방향이 신라의 수도 서라벌과 일치하고 있는데다 기록 속에 와타즈미신사가 ‘도해궁(바다를 건너온 궁)’으로 불렸다고 남아있어 한반도에서 건너온 신을 모신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와타즈미신사의 별미 소고기 고로케와 커피 한잔으로 추위를 달랜 회원가족들은 백제에서 건너온 일본 최고(最古)의 은행나무를 구경하고 출항지인 히타카츠로 향했다. 대마도를 떠나기 앞서 정기회원들은 에메랄드빛 해변, 부드러운 모래가 하얗게 빛나는 백사장이 아름다운 미우다해수욕장을 둘러본 후 스시와 우동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12시 45분 부산으로 향하는 코비에 탑승했다.

지난 10년간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일상의 활력소가 되었던 테마여행, 2016년 특별했던 대마도 힐링여행을 시작으로 또다른 테마여행의 10년을 기대해본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3월에는 경주로 테마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양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으로 보내주시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전화,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607-3100)





설맞이

국악 환마당

2016. 2. 7 sun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PROGRAM

- 유초신지곡 중 엽불, 타령, 군악 / 집박 : 채수만
- 회심곡 / 회심곡 : 이소정
- 가곡 [남창(언락), 여창(편수대엽), 남·여창(태평가)]
남창 : 이희재, 여창 : 정다은
- 가야금 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 남도 민요 [널뛰기, 성주풀이, 신사철거] / 민요 : 박성희, 정선희
- 판굿 / 부산예술단



악장 채수만



회심곡 이소정



정가 이희재



정가 정다은



민요 박성희



민요 정선희



판굿 부산예술단

CULTURE LIFE

- 30_ 프리뷰
- 38_ 리뷰
- 40_ 프로그램 가이드
- 50_ 새로 나온 책
- 51_ 새로 나온 음반
- 52_ 스페셜 무비
- 53_ 스페셜 이벤트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축제 소극장 | 661-6981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광안 | 1600-0316
 AN아트홀 서면 |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설맞이 국악 한마당

2.7(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집박 채수만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월 7일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무병장수와 풍요에 대한 소망을 담아 '설맞이 국악한마당'을 펼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채수만 악장의 집박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소정,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인 이희재, 부산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정선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비상임단원 정다은이 출연, 풍물과 노래가 있는 흥겨운 무대로 2016년의 희망찬 기운을 전해준다.

첫 무대는 8곡의 모음곡으로, '유초신지곡(柳初新之曲)', '취태평지곡(醉太平之曲)'이라고도 하는 기악합주 '평조회상(平調會相)' 중 '염불, 타령, 군악'으로 연다. 이어지는 곡은 불교의 대중적인 포교를 위해 알아듣기 쉬운 한글 사설을 민요 선율에 엮어부른 '회심곡'으로 전국민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리꾼 이소정이 들려준다. '회심곡'은 본격적인 불교음악인 범패에 비해 음악형식과 사설이 쉬운 곡으로, 석가여래의 공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생에서 부처를 믿고 좋은 업을 쌓으면 극락세계로 가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풍류방에서 즐기던 전문 성악가의 노래로 짧은 시조시를 관현악 반주에 얹어 부르는 가곡은 동아국악콩쿠르 정가부문 금상을 수상한 이희재와 정다은이 들려준다. 조선 사회의 지식층에서 애창되면서 발전된 가곡은 시조, 가사와 함께 정가(正歌)라고 하여 판소리나 잡가 또는 민요처럼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구전되는 속가(俗歌)와 예술적으로 구분된다. 현재 남창 26곡, 여창 15곡, 남

녀창 27곡이 전승되고 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여창 '편수대엽'과 남창 '언락'을 들려준다.

세마치 장단에 실려있는 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의 가락을 18현과 25현 가야금중주로 변주, 12현 가야금의 소박하고 정감있는 연주에서 화려한 화성과 풍부한 음향을 즐길 수 있는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에 이어 소리꾼 박성희, 정선희가 신명님치는 남도민요 '널뛰기, 성주풀이, 신사철가'를 들려준다.

설맞이 국악한마당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무대는 부산예술단의 신명님치는 무대 '판굿'. 판굿은 동네의 경비를 목적으로 돈이나 곡식을 얻기 위해 풍악을 연주했던 걸립패나 전국을 떠돌며 노래와 춤, 풍물, 재주 등을 연희했던 남사당패가 펼치던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무대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예술단 김상헌, 정성훈, 김태현, 조한민, 김재현, 김준호, 이한승, 황진삼이 완성도 높은 춤과 기예로 신명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3143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음악회 -프랑스 실내악의 밤

2.23(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교수진들을 초청, 국내 유명 연주자들과의 앙상블 무대를 선보이는 '프랑스 실내악의 밤'이 2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장 프랑세, 드뷔시, 포레, 라벨, 도플러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연주곡과 대표적인 피아노5중주곡인 슈만의 피아노5중주곡으로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우선 이번 무대를 위해 현재 파리국립음악원과 하노버 국립음대 교수로 있으며 니스국제여름아카데미 예술감독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올리비에 가르동이 부산을 찾는다. 룽티보콩쿠르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비오티 베르첼리, 몬짜, 세니갈리아, 카젤라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휩쓸며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한 가르동은 그동안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모짜르테움 오케스트라, 프라하첼레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오케스트라, 불가리아 소피아 필하모닉, 아일랜드 국립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등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현재 파리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필립 베르놀트는 23세의 나이에 프랑스 리옹국립오페라오케스트라 수석주자로 발탁되었으며 1987년 랑팔콩쿠르 우승으로 국제무대에 솔리스트로 데뷔한 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있다 은퇴한 후 현재 뉴욕 맨하탄음대 교수로 있으며 수많은 첼리스트를 배출한 첼리스트 필립 물러는 솔리스트로서 뿐 아니라 실내악 주자로 바로크와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7세 뮌헨콩쿠르를 시작으로 몬트리올콩쿠르, 시벨리우스콩쿠르, 룽티보콩쿠르, 인디애나 폴리스콩쿠르,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 등 권위

있는 국제콩쿠르 수상으로 프랑스 바이올린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올리비에 샤를리에에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 교수로 있으며 연주 및 활발한 음반활동을 통해 음악애호가들과 만나고 있다.

국내 연주자로는 부천필하모닉 제1수석 플루티스트로 오케스트라 활동과 더불어 독주회 및 기획연주회, 실내악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이소영, 지난해부터 니스국제여름아카데미 교수로 초청받고 현재 파리 샤틀레극장, 마씨오페라 오페라 코치,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루에유 말메종 음악원에 출강중인 피아니스트 변애영, 말메종 국립음악원, 파리고등국립음악원, 베르사유국립음악원 등 프랑스에서 음악수업을 받고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솔로리스트, 실내악연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한소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올리스트 김가영이 무대에 선다.

입장료 VIP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2.24(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진정한 가족과 친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가슴 뭉클한 창작뮤지컬 '식구를 찾아서'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관객들과 만난다.

지난 2011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하며 대구에서 첫 선을 보인 후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의 관객들과 만난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는 20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뮤지컬협회 창작뮤지컬 육성지원사업 선정, 2012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어워드 3개 부문 노미네이트, 2012 한국뮤지컬대상 5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극본상 수상 등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 해 화제의 뮤지컬로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투박한 뚝배기 안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사람냄새 물씬나는 작품으로, 화려한 무대미술과 초호화 캐스팅이 아니어도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계의 보석같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식구를 찾아서'는 가수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으로 유명한 대구의 한 고개를 배경으로 박복녀, 지화자 두 할머니의 피보다 진한 우정을 그린 드라마이다. 가족 없이 몽(개), 냥(고양이), 꼬(닭)와 함께 살고 있는 박복녀 할머니의 집에 어느날 지화자 할머니가 찾아와 이 집이 자기 아들집이라고 우긴다. 아들이 이 집 주소가 적힌 편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다는 것. 옥신각신하던 두 할머니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 우체국, 경찰서 등을 함께 돌아다니며 어느새 정이 들고 박복녀 할머니는 지화자 할머니에게 아들의 연락이 올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한다.

혈연이 아니라도 밥과 정을 나누면 누구와도 식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는 일상을 감동으로 바꾸는 소소한 재미와 깨알 같은 즐거움

으로 닫혀있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외로움을 치유해준다. 특히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고사는 박복녀 할머니, 의붓아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자식의 끼니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지화자 할머니 등 두 할머니의 찰떡 호흡과 능청스러운 연기에, 한때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귀족고양이 '냥', 중국집에서 살며 남부러울 것 없었던 개 '몽', 알을 낳을 수 없지만 모성애만은 최고인 닭 '꼬' 등 버려진 동물 삼인방이 리얼한 연기를 펼치며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한다.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화가 있는날 5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Preview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2.25(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세계 정상의 어린이합창단인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가 2월 2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2016년 첫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이건륜이 지휘하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영도청소년합창단이 출연해 합창을 통한 우정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특히 수석지휘자 이건륜은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지휘자로도 활동한 바 있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이 빚어낼 최고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4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하면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첫 무대를 갖는 지휘자 이건륜은 2016년 창단 43주년을 맞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역사를 이어갈 젊고 유능한 지휘자로 주목받으며 취임과 함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960년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이 창설한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1978년 영국 BBC 주최 세계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했다. 국내외의 수천 여회 연주회를 통해 해외 전문가로부터 ‘천상의 메아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은 창단 56년의 오랜 전통 위에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 영상과 함께하는 공연, 퍼포먼스와 연출력을 겸비한 공연을 만들어 가며 합창문화의 수준 높은 장을 열어가고 있다.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에 이어 무대에 서는 영도청소년합창단은 영도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합창단으로, 지난 2011년 창단된 후 2013년 제2회 전국코러스코리아 합창콩쿠르 금상 수상, 2013년 부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특별출연 및 부산국

제합창제 국제합창단 초청공연, 2015년 전국환경합창경연대회 은상 수상 등 콩쿠르 수상과 초청공연을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A Little Jazz Mass’로 시작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이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상임작곡가로 있는 이현철의 창작곡을, 영도구립청소년합창단이 ‘산유화’, ‘도라지꽃’ 등 창작곡을 들려주며 이밖에 우리민요와 국내외 창작곡 등 다채로운 연주곡을 들려준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A Little Jazz Mass’는 발 칠컷의 재즈 미사곡으로 드럼 장경식, 콘트라베이스 정준용, 드로잉 김길범의 특별출연으로 펼쳐진다.

입장료 문 의 균일 1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08, 3146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_BN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I 러시아 음악여행 차이코프스키 편

2.26(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휘 정인혁

해설 정희정

협연 김상균

객원악장 이석중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으로 브런치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온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첫 번째 무대가 2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2016년 올 한해는 음악사에 풍성한 발자취를 남긴 유명 작곡가들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2016년 웰빙콘서트 시리즈의 첫 주인공은 바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차이코프스키. 모스크바음악원 교수로 있으며 40년간 창작에 전념,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을 완성한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적인 센티멘탈리즘을 바탕으로, 낭만적인 표현이 매력적인 19세기 러시아 최대의 작곡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인혁이 객원지휘하고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Promusica Chamber Orchestra in Ohio 객원 부악장, Esemble Con Cuore(sponsored by Thomastik Infeld String Company)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상균이 협연하고 성남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객원악장으로 활동한 이석중이 객원악장으로 출연,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53,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러시아 음악여행을 떠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를 졸업하고 도독,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한스-아이슬러' 지휘과(Diplom) 및 동대학 지휘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지휘자 정인혁은 2006년 '도쿄국제지휘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일본 센다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일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일본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했으며 독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럽 무대에 데뷔, 현지의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오페라 무대에

도 학구적인 관심을 가져온 정인혁은 지난 2011년 11월 국립극장에서 앙브루와즈 토마의 오페라 '햄릿'을 한국 초연한 후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특별상, '제1회 셰익스피어 어워드 오페라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유학, 비엔나 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 미국 Cleveland Institute of Music에서 최고연주자전문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상균은 그동안 Anton Webern Orchestra 단원, 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악장, CIM 오케스트라 악장, Chicago Civic Symphony Orchestra Concertmaster 악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3년 영국 태생의 세계적인 지휘자인 Harry Bickert의 지휘로 Chicago Symphony Hall에서 협연 데뷔무대를 가진 바 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로부터 아름답고 순수한 톤을 가진 연주자로 호평받기도 한 김상균은 이번 무대에서 차이코프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자 애수에 젖은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받고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를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4~5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제15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2.29(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안드레이 이오누트 이오니치

클라라 주미 강

뤼카 드바르그

폴란드 쇼팽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수상자들과 함께 하는 제15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가 2월 2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러시아 태생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를 기념해 지난 1958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남녀 성악부문으로 나뉘어 4년마다 개최해오고 있다. 클래식 라이징 스타들의 각축장으로 그동안 수많은 세계적인 연주자를 탄생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명훈, 백혜선, 임동민, 임동혁, 손열음, 조성진 등이 입상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5년 열린 제15회 콩쿠르 수상자 가운데 첼로부문 1위 수상자 안드레이 이오누트 이오니치와 바이올린 부문 4위이자 최우수 협주곡 특별상 수상자인 클라라 주미 강, 그리고 피아노 부문 4위이자 모스크바 평론가협회 투표 최고상 수상자인 뤼카 드바르그가 부산 관객들과 만난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엔스 페터마인츠를 사사한 첼리스트 안드레이 이오누트 이오니치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 이전에도 여러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승한 바 있다. 이오니치는 2015/16 시즌 현재 베를린, 상트 페테르부르크, 볼로냐, 부다페스트에서 여러 메이저 오케스트라와 함께 데뷔무대를 갖고 있으며 런던, 뮌헨, 바덴바덴에서도 2015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조직위원장이었던 발레리 게르기에프와 협연 무대를 펼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알려진 클라라 주미 강은 4살 때 안하임 음악원에 입학한 데 이어 뤼벡대학에서 자카르 브론을,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김남윤을 사사했다. 이미 세계무대에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는 클라라 주미 강은 차이코프스키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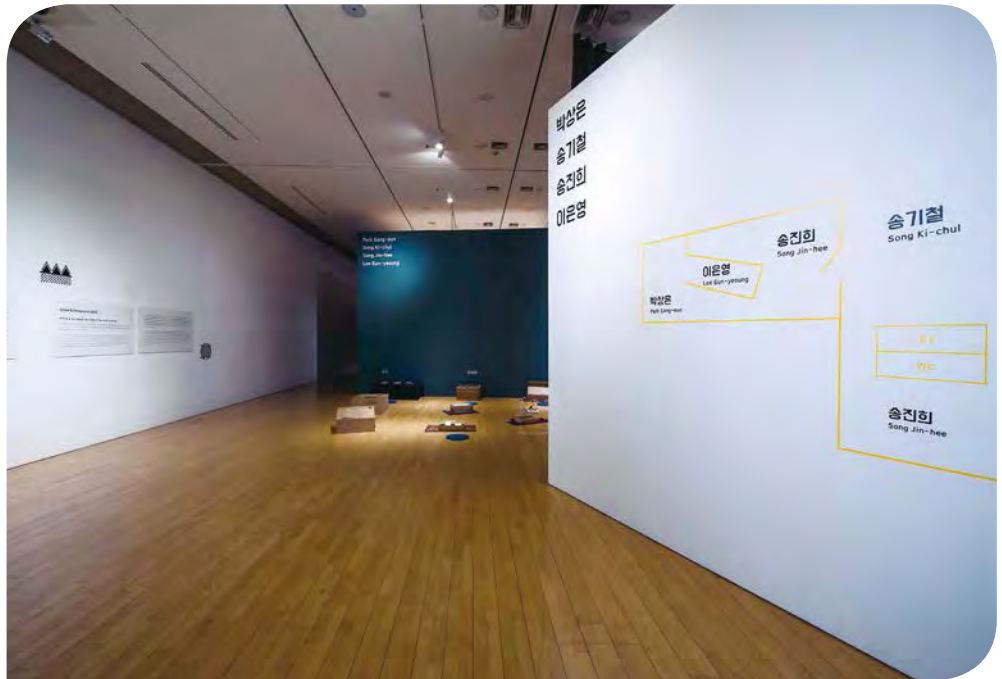
콩쿠르 수상을 계기로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 무대를 갖는 등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콩쿠르 내내 큰 화제를 몰고 다녔던 프랑스의 젊은 피아니스트 뤼카 드바르그는 정규 음악교육 조차 받지 않았지만 독특한 해석과 특유의 자유분방함으로 관객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 전 세계 유명 콘서트홀에서 초청받는 음악계의 핫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세레세프스카야 제자로 있는 드바르그는 메트너나 콘슬라네츠 같은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에도 공을 들이고 있으며 파리에서는 재즈연주자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뤼카 드바르그, 첼리스트 안드레이 이오누트 이오니치의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가단조 D.821',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의 바흐 '무반주 파르티타 제2번 샤콘느'에 이어 세 연주자의 개성과 앙상블의 폭발적인 케미가 기대되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 가단조 작품 50'을 들려준다.

입장료 V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다양한 주제와 테마가 있는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매회 다양한 주제와 테마가 있는 전시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이 2월에도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지역미술의 잠재력을 확산시키고 부산 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열어온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15'전은 2월 14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 H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15'에서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토대로 선정된 박상은, 송기철, 송진희, 이은영 등 작가 4인의 작품이 선보인다. 작가의 삶 속에서 파편처럼 혼재하는 모순과 기이함, 욕망을 찾아내 예술 혹은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답하는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상은 작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욕망과 불안, 상처와 두려움, 연민과 자기혐오가 뒤섞인 감정들을 여성의 몸과 언어를 통해 부각시키며, 이은영 작가는 편향된 인식을 거부하고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을 재인식할 수 있는 섬세한 감각과 새로운 이성의 구성을 추구한다. 또한 송기철 작가는 억압적인 세계를 지표하는 삶의 모든 모순적인 것을 찾아내려는 '사유하는 자'로서의 예술가의 자리를 확보하려 하고 송진희 작가는 삶과 예술 사이에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아닌 '개입하는 자'로 들어설 수 있는 틈새를 기획해낸다.

소장품 기획전으로 열리는 '부산 토박이, 토벽동인의 재발견'전은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한국전쟁 혼란기에 부산미술의 맥을 이어간 토벽동인(土壁洞人)의 작품과 당대 예술의식을 재조명하는 전시로 김경, 김종식, 김윤민, 임호, 서성찬, 김영교, 차상안의 작품이 전시된다.

입장료 무료
(엔디 위홀전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7천원)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art.busan.go.kr

한국전쟁 이전 부산미술계는 경남 일대를 포함해 일본 및 해외유학파 작가들이 화단을 형성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1946년 '부산미술가 동맹'(현 부산미술협회), 1947년에는 '부산미술동맹준비위원회', '조선미술가동맹부산지부'가 결성되었으며 1948년과 1949년에는 민주중보사가 주최하는 '부산미술전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임시수도 부산이라는 한 공간에서 피란예술가와 토착예술가가 섞여 새로운 미술 전기(轉機)를 맞이하게 되었고 피란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은 기존 부산미술계가 위축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부산 토착작가들에게 부산 미술의 현실중심의 지역풍토를 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고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부산 토착작가들로 하여금 '토벽(土壁)'이라는 동인모임이 탄생하는 계기를 낳게 했다.

토벽동인회는 1953년 서성찬, 김영교, 김윤민, 김종식, 임호, 김경 등 6인의 부산작가들로 결성된 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단 3차례 동인전을 가진 후 해체되었지만 현대적이면서도 토속적 서정성과 순박한 작품세계로 당시 부산 미술계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토벽동인의 작품들과 함께 차상안 작가가 '미디어 재매개'라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예술매체를 수용하고 부산미술의 맥을 이어나간 토벽동인들의 작품을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로 재해석한다. 전시는 3월 27일까지 3층 소전시실에서 열린다.

부산시립미술관 2층 기증자전시실에서는 2016 기증상설전 '낯선 익숙함:기억의 잔상'전이 3월 27일까지 열린다. 올해 기증상설전은 '부산'이라는 장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성을 담보한 부산미술을 재조명하는 전시로, 첫 전시는 60여 년간 묵묵히 사진의 길을 걸어온 원로 사진작가 김복만의 1960~70년대 기증작품으로 꾸며진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우연한 기회에 미군트럭에서 사진기를 운명처럼 만나면서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된 김복만은 귀가하는 농민과 농촌의 거리경경, 인간적 여유와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의 일상의 리얼리티를 포착한 사진, 예술사진으로써의 조형적 실험 작품 등 다양한 모색의 시대를 거쳐 왔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대적 기난과 남루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위하여 작가는 피사체가 카메라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사진예술의 리얼리티를 구현하고 있다.

이밖에 상업적인 대중문화와 일상생활의 어휘를 미술로 끌어들이는 팝 아트의 대가로 자기 세대와 소통하고 당대를 반영한 '앤디 워홀 라이브'전이 3월 20일까지 계속된다. 앤디 워홀의 독특한 스타일은 현대인의 욕망을 정직하게 끌어냈고 회화와 판화, 예술 작품과 상품의 경계를 무효화시켰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전시로, 그의 대표작 뿐만 카모플라주 자화상, 해골, 라파엘 마돈나-\$6.99, 베를린 프리드리히 기념비 등 2m가 넘는 대형 작품들과 30년 만에 발견된 디지털 작품 등 쉽게 만날 수 없는 희귀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주요 일정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15 vision & perspective 2015

- 박상은 송기철 송진희 이은영
2015년 12월 18일(금)-2016년 2월 14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H실

2016 기증상설전 '낯선 익숙함:기억의 잔상'전

1월 15일(금)-3월 2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기증자전시실

소장품기획전 '부산 토박이, 토벽동인의 재발견'전

1월 19일(화)-4월 24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앤디 워홀 라이브'전

2015년 11월 25(수)-2016년 3월 20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내려놓음에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16 신년음악회

정두환 음악평론가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의 한파 속에서도 음악을 통한 소박한 행복을 찾고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문화회관 대극장은 세이코 김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무대를 향한 사람들의 모습의 기대 속에 등장한 세이코 김의 지휘로 울려 퍼진 베토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의 웅장한 포르테가 추웠던 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듯 힘차게 울려 퍼졌다. 불쌍한 인간을 위해 인류 창조를 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테마로 베토벤이 발레음악으로 작곡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은 지금은 주로 서곡을 연주하지만, 음악의 흐름 속에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묻어 있는 곡이다. 멀리서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삶을 기억하고 찾는 사랑의 이야기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웅장한 울림은 이전의 울림과는 차이를 보였다. 새롭게 시작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듯 하였다. 웅장함 속에 녹아있는 숨결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현의 울림으로 이야



기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짧은 서곡이었다.

자연스럽게 흐르듯 시작하는 모습 속에 지휘자 세이코 김의 깊은 음악적 흐름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관악의 조련을 더욱 매물차게 요구했다. 2부에 있을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을 위해 아껴두고 있는 듯 했다. 관악의 포효를 잠시 뒤로 물러서는 듯한 음악의 흐름은 베토벤 교향곡 4번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현과 관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며 더욱 섬세하게 음악을 움직여야 하는 교향곡 4번을 지휘자는 점층법으로 하나씩 더해가는 음악으로 선택한 듯 보였다. 베토벤의 교향곡 9곡 중에서도 가장 균형감과 건축미를 뽐내는 음악으로 많은 지휘자들이 공을 들여 만들어 가는 곡이다.

재일 한국인 지휘자 세이코 김은 특유의 섬세함으로 음악을 만들어갔다. 아쉬움은 2악장의 섬세함이 지휘자와 함께 흘러야 함에도 서로를 견제하는 듯 음악은 만나기를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악의 부드러움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무뎠음으로 나타나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휘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함께 음악의 흐름에 동승하였다.

2부의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은 그동안의 부산시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힘과 유연함을 보여주는 선율이 전체적으로 흘렀다. 1악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금관의 힘은 최선을 다해 지휘자의 요구에 응했다. 포효하여야 하는 호른을 선두로 금관의 소리, 음향과 음형 만들기, 서로 대화하듯 흘러야 하는 목관의 이야기 등 모두가 자연스러운 듯 흘러갔다. 2악장에서 울려 퍼지는 오보에의 선율은 비애를 나타내기에 충실했다. 한몸 처럼 흘러가는 현악기를 타고 음악은 만들어졌다. 지휘자의 빠르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로의 음악을 들어주고 서로를 위로 하면서 흘러야 하는 전체의 음향을 조금 더 연주자들이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3악장의 피치카토 연주의 흐름은 함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곡이다. 함께하고자 하는 현악기 연주자들의 모습 속에서 지휘자의 역량은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목관악기의 음량과 현악기의 조화로운 음량이 결국 좋은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지막 악장의 품어내는 소리의 향연은 모든 어려움을 말끔히 씻어내는 듯 울려 퍼졌다. 서로를 감싸 안고 흐르는 음악의 흐름은 결국 지휘자의 몫인 것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신년 음악회의 모습에서 필자가 발견한 것은 함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잘하고 싶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고, 좋은 환경으로 관객과 만나고 싶은 여러 가지 욕심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 모두가 행복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면, 스스로를 내려놓음에 있다. 과시하고 싶은 음악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에서 필자는 하나의 화두를 안고 돌아왔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음악을 만나고 싶기에 진정 소박한 내려놓음을 실천하라는 음악의 이야기를...

과거에 대한 향수와 시니어 소비자의 부상

남인용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2~30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노래도 당시 유행하던 가요들이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근거로 문화를 소비하는 경향은 라디오의 가요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 청취자들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시절에 즐겨듣던 노래들을 라디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 시간의 대부분에 할애하고 있는 CBS 음악 FM은 다수의 프로그램이 동일시간대 점유율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기독교 방송이지만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과거 노래를 집중해서 듣기 위해 CBS 음악 FM을 즐겨 듣는다고 한다.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 듣고 부르던 노래를 기성세대만 즐기는 것은 아니다. 요즘 젊은 층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젊은 시절에 즐겨 듣던 옛날 노래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젊은 날의 추억을 간직한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기성세



대, 즉 시니어 세대의 약진은 시사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방송을 시작한 종합편성채널들은 낮 시간의 재방송 편성시간대를 시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생방송으로 편성했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국이 프로그램 포맷을 모방할 정도로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시니어 세대이다.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 출연자들의 거친 말투와 큰 목소리, 과장된 몸짓은 신체 활력이 부족해지는 시니어 세대가 이해하기 쉬운 소통 방식이었다.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보수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시니어 세대의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은 문화콘텐츠의 확산과 시니어 세대를 주시청자로 삼는 시사프로그램의 성장은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 소비자의 부상을 입증한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니어 세대의 소비능력을 염두에 둔 편성일 수밖에 없다.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시니어 세대에 대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소비자행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 세대의 부상은 명백하다. 2014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 중 50대 이상이 35%이며 시니어 세대가 전체 자산의 61%를 보유하고 있다. 시니어 세대 중에서 적극적인 소비와 문화생활을 하는 고소득의 액티브 시니어들은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77만원으로 30~40대보다도 많은 편이었다.

1980년대의 생활양식이 영상이나 음악을 통해 현재 유행하게 됨으로써 기성세대는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문화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느 세대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달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기성세대는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를 돌아보며 미화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삶에 대해 고정 관념을 갖고 이해하며 자신들의 삶이 기성세대보다 못하다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문화콘텐츠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문화콘텐츠는 젊은 층과 시니어 세대의 활발한 상호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Concerti Romani'

일 시 | 2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전 세계가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신화'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Concerti Romani',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The Musicians)'을 뜻하는 이 무지치는 지난 1952년 이탈리아의 명문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12명의 촉망받는 음악인들로 창단된 후 지금까지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실내악의 섬세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완벽한 하모니로 수식어가 필요없는 세계 최고의 실내악단으로 사랑받아왔다.

2016년 새해의 희망을 들려줄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곤체르토 그로소(합주 협주곡)라 불리는 바로크시대의 독특한 기악형식을 완벽하게 자리잡게 한 코렐리와 그의 제자들이 이룬 로마학파의 작품을 통해 17세기 이탈리아 음악의 황금기를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사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비발디 '사계'를 그 명성 그대로 감동적인 연주로 들려준다.

2016 예감 뮤지컬 콘서트

일 시 | 2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예감엔터테인먼트 010-4563-7969



뮤지컬배우를 육성해온 예감뮤지컬트레이닝센터의 2016년 뮤지컬 워크샵 발표회 '2016 예감 뮤지컬 콘서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6명의 연기생들이 2부로 나누어 영웅, 드라마큐, 엘리자벳, 마리 앙투아네트, 위키드, 미스사이공, 프랑켄슈타인, 아이다, 몬테크리스토 등 유명 뮤지컬넘버를 들려준다.

- 연출/이상호
- 특별출연/김윤호, 선승일, 강동석, 안재성
- 출연/김도한, 이대희, 최훈운, 박준수, 한민승, 임세현, 이강한, 김수희, 김문정, 김민지, 서혜원, 김만주, 강보람, 이보은, 이은수, 이상아, 이원진, 강수민, 김지오, 김한지, 장예슬, 김미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16 설맞이 국악 한마당

일 시 | 2월 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05, 3143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무병장수와 풍요에 대한 소망을 담아 마련하는 '설맞이 국악한마당'.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채수만 악장의 집박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이소정, 국립부

산국악원 단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이희재, 부산예술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정선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비상 임단원 정다은이 출연, 풍물과 노래가 있는 흥겨운 무대로 2016년의 희망찬 기운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유초신자곡' 중 '염불, 타령, 군악', 회심곡, 여창 가곡 '편수대엽', 남창 가곡 '연락', 가야금중주 매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남도민요 '널뛰기, 성주풀이, 신사철가', 판굿

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일 시 | 2월 13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태건 010-3879-2487

부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클래식 단체들을 참여시켜 무대가 필요한 아마추어 예술인들에게는 무대를,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는 아가페 문화예술원의 참사랑 패밀리 콘서트.

아가페 문화예술원은 각 연주단체의 전문 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을 연결시켜 실력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깊은 클래식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창단된 단체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가페 남성중창단, Agape Orchestra, 부산지부 Trumpeter 등이 출연, 남성중창과 혼성중창, 플루트 앙상블과 오케스트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6일 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태훈 010-8728-1214

지난 2008년 10월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로 결성된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청소년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센텀 글로벌 오케스트라는 창단 후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청공연, 특별연주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공연 문화 창달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그램]

- 글린카/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 요한 슈트라우스 1세/라데츠키 행진곡
- 비발디/사계' 중 '여름' 등 수곡
- 지휘/김태훈(동대대학교, 경경대학교 오라교수)



제12회 예원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춤을 추다

일 시 | 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예원회 010-4871-9288



부산대학교 안원희 명예교수의 제자들로 결성된 예원회의 12번째 정기연주회. 대학원 졸업 이상, 해외 학위 소지자들의 실력있는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예원회는 지난 200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11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학

구적인 무대와 더불어 가족을 위한 '이지 클래식', '교과서 음악회' 등 다양한 기획연주회로 대중과 함께하는 무대를 마련해왔다. 특히 지난 제10회, 제1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시리즈를 기획, 안원희 교수의 제자이자 예원회 회원인 헤럴드필하모닉 상임지휘자 김봉미의 지휘로 또다른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음악 중에서 춤곡만으로 구성, 피아노 독주와 듀오를 통해 시대와 국가별로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 연주/박여명, 구화진, 차미령, 안버리, 조아라, 박남희, 정꽃님, 임현지, 김민지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남구청 문화체육과 607-4064

남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문화사절단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2009년 6월 창단한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이기대 달맞이축제 축하공연, UN평화음악회, 백스코 오디토리움 개관기념 오페라 '토스카' 출연, 부산청소년합창제, 남구청 개청 40주년 기념행사 축하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상임지휘자 김주곤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애니메이션 메들리, 뮤지컬 '레미제라블', 전래동요, 창작합창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주곤 • 반주/이소진
- 특별출연/KN남성중창단, 부산색스폰과이어5중주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20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 010-4842-6688

지난 1998년 인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부산을 대표하는 청소년교향악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단한 '부산리틀스트링스오케스트라'를 2008년 지금의 이름으로 재창단한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그동안 청소년들의 학문과 인성, 음악을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균형있게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인코리아안유스오케스트라, 인코리아안 아카데미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김정민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베토벤 '운명 교향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음악회 프랑스 실내악의 밤

일 시 | 2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교수진을 초청, 국내 유명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프랑스 실내악의 밤'. 이번 무대에서는 장 프랑세, 드뷔시, 포레, 라벨, 도플러 등 프랑스 작곡가들의 연주곡과 대표적인 피아노5중주곡인 슈만의 피아노5중주곡으로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프로그램
 장 프랑세/플루트,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궁정 음악
 드뷔시/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포레/4손을 위한 모음곡 '돌리' 작품 56
 라벨/처간 등

- 피아노/올리비에 가르동, 변애영
- 바이올린/올리비에 사를리에, 한소라
- 첼로/필립 물러 • 비올라/김기영
- 플루트/필립 베르놀드, 이소영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일 시 | 2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화가 있는 날 5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6, 3100



진정한 가족과 친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가슴 뭉클한 창작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지난 2011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하며 대구에서 첫선을 보인 후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의 관객들과 만나온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는 201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뮤지컬협회 창작뮤지컬 육성지원사업 선정, 2012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에그리너워드 3개 부문 노미네이트, 2012 한국뮤지컬대상 5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극본상 수상 등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 해 화제의 뮤지컬로 주목받았다.

- 작, 연출/오미영
- 작곡, 음악감독/조선형 • 인무/정윤
- 출연/우은, 백현주, 이상은, 김성현, 남정우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일 시 | 2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08, 3146



세계 정상의 어린이합창단인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2016년 첫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이근륜이 지휘하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영도청소년합창단이 출연해 합창을 통한 우정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 지휘/이근륜(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 출연/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 영도청소년합창단
- 드림/장경식 • 콘트라베이스/정준용
- 드로잉/김길범

부산시립예술단 특별기획연주회 BN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2016 웰빙콘서트! 러시아음악여행-차이코프스키 편

일 시 | 2월 26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06, 3144~5

음악사에 풍성한 발자취를 남긴 유명 작곡가들의 작품세계로 음악여행을 떠나는 2016년 웰빙콘서트 첫번째 무대 '러시아 음악여행-차이코프스키 편'.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정인혁이 객원지휘하고 KNN 아나운서 정희정의 해설,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Promusica Chamber Orchestra in Ohio 객원 부악장, Ensemble Con Cuore(sponsored by Thomastik Infeld String Company)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상균이 협연하고 성남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객원악장으로 활동한 이석중이 객원악장으로 출연,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53,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등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러시아 음악여행을 떠난다.

- 지휘/정인혁(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
- 해설, 진행/정희정(KNN 아나운서)
- 협연/김상균(바이올리니스트) • 객원악장/이석중

부산볼런티어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사람의 노래, 바람의 소리

일 시 | 2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볼런티어윈드앙상블 011-574-0423

...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악 전문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볼런티어윈드앙상블 정기연주회.

지난 2012년 창단된 부산볼런티어윈드앙상블은 2012년 부산광역시 주최 자원봉사자대회 축하음악회를 비롯해 2015년 경북자원봉사자대회 초청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볼런티어윈드앙상블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문연주자들이 고등학교 악대부를 지원하는 협약식(MOU)을 체결, 학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음악 자원봉사를 펼쳐오고 있다.

- 지휘, 해설/정두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제15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일 시 | 2월 2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65, 3100

...

폴란드 쇼팽콩쿠르, 벨기에 퀴 엘리자베스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제15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지난 2015년 열린 제15회 콩쿠르 첼로부문 1위 수상자 안드레이 이오누트 이오니처와 바이올린 부문 4위이자 최우수 협주곡 특별상 수상자인 클라라 주미 강, 피아노 부문 4위이자 모스크바 평론가협회 투표 최고상 수상자인 루카 드바르그가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루카 드바르그, 첼리스트 안드레이 이오누트 이오니처가 들려주는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가단조 D.821'에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의 바흐 '무반주 파르티타 제2번 사콘느', 그리고 세 연주자의 개성과 앙상블의 폭발적인 케미가 기대되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트리오 가단조 작품 50'을 들려준다.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6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5

2월 13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 금관5중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와 금관5중주가 들려주는 실내악의 향연.

프로그램

사랑의 인사(엘가 곡), '사계' 중 '겨울' 2악장(비발디 곡), 영화 '올드보이' 중 'The Last Waltz(미도 테마)', 도나우강의 물결(이바노비치 곡),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 '언제나 몇 번이라도', 영화 '미션' 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호두까기인형' 중 '꽃의 왈츠(차이코프스키 곡), 리베르탱고(피아졸라 곡), 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 한 걸음 더 가까이(Just a Closer Walk), 인스턴트 콘서트(Instant Concert),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로레 미싱', 마법의 성(김광진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 현악4중주/바이올린 권순지, 조은비, 비올라 황영은, 첼로 윤주연
- 금관5중주/트럼펫 박승훈, 김세운, 혼 앙상블, 트럼본 박소정, 튜바 조상혁, 드럼 서봉진
- 클라리넷/권진우
- 오보에/박소담

2월 20일 부산시립합창단 공연

...

1972년 창단된 후 매년 새로운 창작합창곡을 발굴하고 위촉을 통해 창작 합창음악의 발전에 힘써온 부산시립합창단이 희망찬 새 봄을 노래하는 다양한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강 건너 봄이 오듯(임금수 곡), 남촌(김규환 곡), 청산에 살리라(김연준 곡), 4월(토스티 곡), 봄 꿈(슈베르트 곡), 봄의 기쁨(슈베르트 곡), 사월의 노래(김순애 곡), 봄이 오면(김동진 곡), 그리운 마음(김동환 곡), 봄 숲속에서(Landon Ronald 곡), 제비꽃(모차르트 곡), 봄의 왈츠(슈트라우스 곡)

- 소프라노/권순유, 엄남이, 이혜진
- 알토/김윤희, 신소은, 배소영
- 테너/강은태, 강종철, 조성기
- 베이스/인재형, 최기호, 최성규
- 특별출연/모자이크 현악4중주

1월 27일 재즈밴드 러브레터

...



보컬이자 부산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로 있는 최은아를 리더로 피아노 김상수, 베이스 김대경, 드럼 김진훈, 색소폰 김승모, 기타 이달현으로 구성된 재즈밴드 러브레터의 무대.

재즈밴드 러브레터는 그동안 국도레코드 초청공연, 시와 음악의 축제 초청공연, 2012 부산문화회관 제야음악회 로비콘서트, 갤러리 움 초청공연, 드림아트홀 네 번째 음악이야기 초청공연, 소민아트센터 초청공연, 부산국제영화제 축하 공연, 러브레터가 들려주는 재즈 이야기, 부산 재즈클럽 monk 정기공연, 대구 재즈클럽 올드블루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서었다.

프로그램

route66, tristeza, sway, 우울한 편지, love,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what a wonderful world, no more blues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10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3일 Korea Wind Consort with Petite Symphonie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조성철, 대구 국제오페라오케스트라 수석인 오보이스트 박선민, 코리아윈드필하모니 단원으로 있는 오보이스트 이용주, 창원시윈드오케스트라 악장,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정울,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클라리네티스트 권진우,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바수니스트 장정호, 바수니스트 윤주훈,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호른리스트 임승범과 전성희로 구성된 Korea Wind Consort의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세레나데 다단조 K.388

구노/Petite Symphonie

17일 로이멘 앙상블 '노 프레임 심리 클래식'



부산플루트앙상블, 플루트 파르티트 클랑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유주영,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 TDC 앙상블 수석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금성빈, 뉴아시아오페라단 음악코치, 부산반주연구회 회원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경미로 구성된 로이멘 앙

상블의 무대.

'로이멘(Räumen)'은 '비워 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의 독일어 동사로,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어디서든 클래식음악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앙상블 단원들의 강한 열정과 의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다.

작곡가 나실린이 편곡한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슈만 '시인의 사랑'과 함께 미술치료현장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세기의 명화를 음악심리치료사인 김성애의 해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4일 정하린, 김창미의 2인 음악회

'전통으로부터 현대까지'

현대풍류방 가와 동인으로 활동하는 가야금주자 정하린과 가곡 전수장학생 김창미가 함께하는 2인 음악회.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루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오후 마련하는 토요일명무대.

6일 [프로그램]

여민락, 궁중검무, 좌수영어방놀이, 거문고 중주곡, 창작성악, 동래학춤, 판국

13일 [프로그램]

종묘제례악, 생소병주 '수룡음', 양소병주 '세령산', 처용무, 산조합주, 태평무, 남도민요, 신명의 춤 '타'

20일 [프로그램]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교류무대

27일 [프로그램]

관현악 '신내림(박범훈 곡)', 성악협주곡 '울고 분노하는 산(김기영 곡)', 해금협주곡 '훈무(도날드 위맥 곡)', 대금 협주곡, 가야금 협주곡 '새봄(황병기 곡, 김만석 편곡)', 피리협주곡 '가산향(원일 곡)'

Program Guide >>>

KBS부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KBS부산어린이합창단 010-5533-7706

...

지난 1955년 창단 후 다양한 공연과 방송을 통해 아름다운 창작동요 발굴과 보급에 힘쓴 역사와 전통의 KBS부산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현재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45명으로 구성된 KBS부산어린이합창단은 그동안 부산KBS창작동요대회, 전국KBS합창제, 청소년합창제, 부산바다축제,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동요뿐 아니라 만화영화 주제가, 가요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태호 • 반주/오은영 • 안무/함주현



고연경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2월 15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김스클래식예술기획 010-3821-5455

...



진취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그녀만의 독특한 연주기법으로 높은 완성도의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고연경 독주회.

영남대학교 관현악과 및 동대학원, 미국 볼주립대학교(석사),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섐페인(박사)을 졸업하고 Sinfonia Da Camera 부악장, Milikin-Decatur Symphony Orchestra 제2바이올린 수석, Illinois Symphony Orchestra, Peoria Symphony Orchestra 단원 등을 역임한 고연경은 다수 독주회와 앙상블을 통해 감동적인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12 제3번

바흐/사콘느 BWV 1004

브람스/소나타 라단조 작품 108 제3번

마누엘 폰세/작은 별(Estellita)

• 피아노/이정은

제 107회 한낮의 유U; 콘서트 김준호 손심심, 우리들이

일 시 | 2월 16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500-5222

...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콘서트로 사랑받고 있는 한낮의 유U; 콘서트 2월 무대.

동갑내기 국악인 부부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소리꾼 김준호, 춤꾼 손심심이 함께하는 신명 넘치는 무대로, 타고난 춤꾼 손심심의 동래학춤과 부부의 찰떡 호흡이 빛어내는 우리 소리 한미당이 펼쳐진다.

게스트로 국립부산국악원 민요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로 있는 소리꾼 최윤영이 출연, 소리와 최규식, 이영식의 드로잉아트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무대도 선사한다.



최무진 리사이틀

일 시 | 2월 16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무진 010-4030-9357

...



현재 마노목관5중주 단원, C.I 윈드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수니스트 최무진 독주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을 수료한 최무진은 부산청소년시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그동안 독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생상/소나타 작품 18

J. B 바날/협주곡 바장조 Mot. 1

프로코피에프/악살스런 스케르초

(Sherzo Humoristique)

나카무라 유리코/Long Long Ago

C. 자코비/서주와 플로네이즈 작품 9

(사)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
제25회 정기연주회

2016 D'amour

일 시 | 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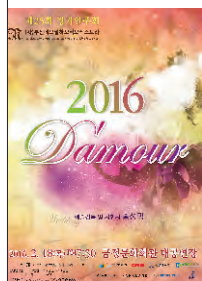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초중고생 50% 할인)

문 의 |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010-8758-8006

...



지난 2013년부터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해 온 (사)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9년 7월 창단된 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는 40명의 정단원이 상근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로, 매년 50회 이상 폭 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차이코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그리고 '페르퀀트 조곡' 등 아름다운 서곡과 세레나데로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 예술감독, 지휘/홍성택

음악풍경 청년음악가 시리즈 19, 20
청년이 살아야 음악도 산다

-바이올리니스트 서혜은, 오보이스트 이현수

일 시 | 2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

역량있는 신예 음악가들을 발굴, 데뷔무대를 제공하고 있는 청년음악가 시리즈 2016년 첫 무대.

부산음악협회 음악공쿠르 바이올린부문 1등, 부산교육청 음악공쿠르 바이올린부문 금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솔리스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 중인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4학년인 바이올리니스트 서혜은, 부산교육청 전국학생음악공쿠르 관악부문 대상, 한국음악협회 국제학생음악공쿠르 2등을 수상한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오보이스트 이현수가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세계 오페라를 만나다

일 시 |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 5천원(커피 제공)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



금정문화회관이 매일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2016년 첫 무대.

해박한 지식과 재미있는 해설로 유명한 우리나라 대표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함께하는 '세계 오페라를 만나다'는 소프라노 구민영, 바리톤 한정현, 테너 홍지형, 피아니스트 하영하의 라이브 무대와 함께 장일범의 생생한 이야기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오페라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현재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마리아 칼라스홀 음악감독, KBS 1FM 라디오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일범은 그동안 TBN '오페라 스타' 심사위원, 올레TV '장일범의 만만한 클래식'을 진행한 바 있다.

보레아스 콰르텟 브레멘 초청 리코더 연주회

일 시 | 2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리코디아 02-2692-7945

...

백진주, 엘리자베스 샴폴리옹, 율리아 프리츠, 루이제 만스케 등 독일 브레멘음대에서 한 톨(Han To) 교수를 사사한 4명의 리코더 연주자들로 결성된 보레아스 콰르텟 브레멘은 2014년 독일 정부가 주최하는 40년 전통의 가장 큰 국제공쿠르인 '40. Deutschen Musikwettbewerb' 앙상블 부문에서 다른 클래식 악기를 제치고 리코더 음악으로만 당당히 1등을 수상, '독일정부가 뽑은 젊은 음악가들'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수많은 연주와 장학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 특별출연/한 톨



카파렐리 기타 초청 해외 핑거스타일 아티스트 콘서트 VII All Female Guitar Night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동아대학교 다우홀

입장료 | 균일 3만 8천원

문 의 | 카파렐리 070-4639-1589

...



독창적인 디자인과 특색있는 부품 등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타 브랜드 '카파렐리 기타'가 마련하는 해외 핑거스타일 아티스트 초청 7번째 무대.

'핑거스타일(Finger Style)'은 기타를 퍼커션처럼 두드리면서 일정한 리듬과 동시에 멜로디도 연주하

는 특수 주법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2012년 Upsala 국제 기타페스티벌에서 우승하며 유명해진 스웨덴 출신의 신예 기타리스트 Gabriella quevedo, 유튜브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한 여성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Sandra Bae,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여성 기타리스트 Kanaho(奏响) 등 세 명의 핑거스타일 아티스트가 출연, 핑거스타일 연주의 매력을 선사한다.

Play 연극

룸넘버 13

일 시 | 2015년 11월 5일(목)~2016년 2월 14일 (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국회 회기 중에 눈이 맞은 여당 국회의원 리차드와 야당총재 여비서 제인이 호텔방에서 막 일을 치르려는 순간 난데없이 시체가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하게 꼬여만 가는데... 리차드와 제인은 과연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레이 쿠니 특유의 기막힌 반전과 반전에 정치풍자성을 가미한 '룸넘버 13'은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선사한다.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일 시 | 1월 7일(목)~3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2/8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난 2010년 개봉한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을 모티브로, 씬타는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이야기를 로맨틱 코미디로 풀어낸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푼수키 넘치는 도예가 준희가 2년간 짝사랑해온 차도남과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연애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작전을 펼쳐나가는 내용을 담은 '그녀를 믿지 마세요'는 톡톡 튀는 캐릭터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 속에서 로맨틱 코미디다운 대사와 허를 찌르는 웃음코드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 연출/이주영

연극 '행복의 비밀'

일 시 | 1월 9일(토)~3월 1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한 번은 누구나 겪어야 할 죽음, 그 앞에서 두렵지만 당당히 맞서야 할 우리들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행복의 비밀'. 말기암 환자 말수와 보험사기꾼 민복은 그들이 입원하고 있는 종합병원 옥상에 그들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무려한 시간을 보낸다. 간호사 몰래 피우는 담배와 몰래 마시는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시름을 잊으려 하고 매번 해병대 출신의 터프한 간호사와 좌충우돌 솜바꼭질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곳에 아름다운 연변치녀 류연화가 나타나고, 이들이 들려주는 행복한 세상살이 속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2016.1.9(토)~3.13(일) AN아트홀 서면

연극 '검정고무신'

일 시 | 1월 14일(목)~2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2/6일~9일, 월요일 공연없음, 2/10일 오후 2:00, 5:00) 에저토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내는 육남매의 사랑과 우애를 웃음과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검정고무신'. 홀로 오남매를 키우던 어머니는 병들어 눈을 감기 전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업동이를 오남매에게 부탁한다. 만만 진실이는 동생

들을 돌보며 가정의 의무를 다한다. 꿈이 없는 둘째 아들이, 착한 셋째 감동이, 개구쟁이 넷째 양동이, 착한 다섯째 봉실이 그리고 업동이... 육남매의 바람 잘 날 없는 분주한 일상이 곱죽한 부산 시투리 속에 펼쳐지는 연극 '검정고무신'은 관객들을 그 때 그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하며 때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로맨틱코미디극 '연애 하고싶다'

일 시 | 1월 15일(금)~2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행복을주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피어로 1800-9727



두근두근 씬남씬녀의 데이트 추천연극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 하고싶다'.

주인공 희주는 해병대에 죽고 해병대에 사는 외삼촌의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소설가로 등단하기 위해 신춘문예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카페 단골인 연하남 인혁에게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려 하지만 인혁에게는 모델같은 몸매와 예쁜 외모, 재력을 지닌 수경이 있다. 그러던 어느날 외삼촌이 해병대 전우에게 선물받은 '사랑의 묘약'을 희주에게 주고, 희주는 실수로 그만 그 약을 마시게 되는데... 과연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 출연/노민현, 정승환, 배성원, 최종관

연극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일 시 | 1월 31일(일)~2월 6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일요일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나다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배우공동체 배우창고 010-3122-4746



2007년 12월 18일 철거 위기에 놓인 동대문야구장에 마지막 경기가 열린다. 아들 '한복판'은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나서고 누나 한나라는 결승전 축하 공연에 대타로 가수 데뷔무대를 갖는다. 아들의 첫 선발 등판을 응원하러 온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아버

지 한기태, 그리고 야구장 밖에서 꼬마김밥을 팔며 아들과 딸을 응원하는 엄마 양필숙.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발 등판하는 한복판 선수는 과연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승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역사 속에 사라져간 동대문야구장을 시대적 배경으로, 그 속에서 꿈을 먹고 살아가는 한씨 가족의 고군분투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연극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 작, 연출/박훈영

뮤지컬 '왕초품바'

일 시 | 2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13일 토요일 오후 3:00, 6:00, 14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온누리기획 1661-6702



이 시대 마지막 남은 품바 명인 이계준의 '왕초품바'. 각설이타령, 구전민요, 춤, 익살스런 몸짓 등 전통 연희로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각설이때의 애환을 풀어낸 품바에 신디사이저와 현대적인 장단을 가미한 판타지한 앙상블의 댄스로 극의 재미를 더한 '왕초품바'는

그동안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에서 품바 초청 공연을 가지며 2011년 품바 공연 1,000회 기록을 달성한 후 현재까지 2,800여 회 무대에 서온 이계준의 열연으로 펼쳐진다. 현재 극단 광통 대표로 있는 이계준은 지난 1991년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수상, 1993년 충북연극제 특별연기상 수상, 1997년 서울연극제 대상을 수상하고 KBS 아침마당, TBC 리얼인터뷰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연극 '원나잇 온리'

일 시 | 2월 12일(금)~4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4:00(3/1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플레이더부산(1600-1306)



사랑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하룻밤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연극 '원나잇 온리'. 가슴 시린 첫사랑 실패 이후 모든 연애를 거부하는 철벽남이 된 라이브바 'One Night Only Bar' 사장 강철남, 특히 바 내에서 절대 연애금지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장 강철남으로부터 민준은 바 운영과 바텐더로서의 기본자세를 배우는데, 어느날 여자 바텐더 서연이 새로 들어오면서 묘한 긴장감이 형성된다. 다섯 명의 등장인물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각자 다른 관념을 통해 사랑을 이야기하는 '원나잇 온리'는 웃고 즐기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를 관객과 함께 고민해본다.

개그플러스

일 시 | 2월 13일 토요일 오후 3:00, 6: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8만 8천원,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A석 5만 5천원
 문 의 | ㈜문화락 1600-1602



매주 새로운 개그를 통해 웃음을 주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KBS '개그콘서트'와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의 콜라보레이션 무대 '개그플러스'. '개그콘서트'의 대표적인 코너로 충격적인 비주얼과 파격 댄스로 웃음을 주는 자아도취형 개그 '니글니글', '웃찾사'의 화제의 코너로 남매의 일상적인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풀어낸 '혼한남매' 등 백주부 TV, 역사 속 그날, 너무큰다, 아저씨, 호불호, 어.그.뵈 등 두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코너들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부산공연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공연 중 공개 프로포즈 이벤트를 실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어린이뮤지컬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일 시 | 2월 13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4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월 20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2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바위처럼 1577-4868



독일작가 베르너 홀츠바르트의 베스트셀러를 어린이 뮤지컬로 각색한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똥 세례를 받은 두더지의 범인 찾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관찰력을 키워주는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는 특히 똥과 관련된 재미있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어린이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으면서 말의 재미에 빠져들게 한다.

부두연극단 '고도를 기다리며'

일 시 | 2월 18일(목)~25일(목)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 5천원, 대학생 2만원, 중고생 1만 5천원(단체예매시 50%, 전화·온라인 예매시 30% 할인)
 문 의 | 부두연극단 611-6616, 010-5580-4364



'부조리극'이라는 극 양식을 세계에 알리며 주제와 내용, 형식의 새로움으로 세계연극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고도를 기다리며'는 인간 실존의 원형적 이미지를 '기다림'으로 표현, 삶의 의미와 구원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은 무(無)로 떨어지고 마는 인간의 희망과 무의미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으로, 출연배우뿐 아니라 무대스텝들 역시 60세 이상 원로예술인들로 구성, 그들의 농익은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 원작/사무엘 베케트 • 연출/이성규
- 출연/나중기, 오영섭(더블캐스트), 김병락, 이익수, 황용대, 방도용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시즌2

일 시 | 2월 18일(목)~4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00(3/1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1980년대 대중가요로 지금까지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는 가수 송창식의 동명의 가요를 창작뮤지컬로 제작한 '담배가게 아가씨' 시즌2. 아빠와 둘이서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유나는 지난번에 벗어나고자 '돈 많고 스펙 좋은 남자'가 최고라며 사랑을 받지 않는다. 어느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고등학생으로 오해한 경찰관 경찰관 현우와 엮이게 되고, 만화방을 찾은 현우가 우연히 유나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유나는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시즌 2는 시즌 1과는 또다른 스토리에 실력과 배우들이 합류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 연출/주정화
- 음악/지현수
- 안무/이현정

가족뮤지컬 '뉴 겨울왕국'

일 시 |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2/7일까지 조기 예매시 50% 할인)

문 의 | 극단 예일 02-555-0822~3, 1143



2014년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무대에 올린 가족뮤지컬 '뉴 겨울왕국'. 공주의 신분으로 무엇이든 열려버리는 신비한 마법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엘사는 자신도 모르게 마법의 힘으로 세상을 열려버린다.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엘사는 세상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두문불출하는데 마침 궁전의 무도회가 열리는 날,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나타내지만 본의 아니게 또다시 궁전의 모든 것을 열려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사라지는데... 갑자기 사라진 언니를 구하기 위해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동생 언나의 모험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액션뮤지컬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일 시 |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 5천원, R석 4만 4천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EBS 교육방송 어린이 애니메이션 시청률 1위, 동시간대 채널 점유율 1위로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뮤지컬로 제작한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자신만의 특수한 능력으로 악당과 싸워나가는 '최강전사 미니특공대'가 평화로웠던 블루벨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는 파스칼과 기계몬에 맞서 싸우는 액션 뮤지컬로,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재현한 입체영상과 레이저 효과, 예니치 넘치는 액션과 음악으로 생생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힘없고 약한 동물을 지키기 위해 동물특공대로 변신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동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전한다.

EBS애니뮤지컬 '풍선코끼리 발루뵈'

일 시 | 2월 27일-28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MBC삼주아트홀**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 5천원

문 의 | (주)삼주코컴 1670-3737



EBS교육방송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감성적이고 밝은 색감, 인성 교육에 도움을 주는 탄탄한 스토리로 인기가 높은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제작한 '풍선코끼리 발루뵈'. 모든 것이 풍선으로 이루어진 틴들랜드를 배경으로 한 '풍선코끼리 발루뵈'는 방법같은 변신능력을 지닌 믿음직하고 친절함 풍선코끼리 발루뵈와 상상력이 풍부한 풍선소년 파루를 중심으로 풍선 친구들이 펼치는 신나는 모험과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들이 애니메이션과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어린이들에게 선사한다.

2016 뮤지컬 '시카고' 부산공연

일 시 | 3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3:00, 7:30, 6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중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스타디움 뮤지컬 '시카고' 부산공연. 1920년대 격동기의 미국, 그 중에서도 농염한 재즈 선율과 갱문화가 발달했던 시카고를 배경으로, 관능적 유혹과 살인이라는 테마로 완성된 '시카고'는 1975년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인 밥 파시에 의해 처음 무대화된 후 비평가들의 최고 찬사를 받으며 스타일리쉬한 뮤지컬로 사랑받아왔다. 올해로 12번째 시즌을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벨마 켈리'役に 최정원, '록시 하트'役に 아이비, '빌리 플린'役に 이종혁과 성기운, '마마 모튼'役に 전수경과 김경선 그리고 수년간 '시카고'와 함께한 베테랑 앙상블과 14인조 '시카고' 빅밴드가 화려하면서 또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Concerts 콘서트

정준영밴드 단독 콘서트 - 부산

일 시 | 2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롯데카드홀**

입장료 | 균일 7만 7천원

문 의 | (주)프라이빗커브 02-563-0595

MIKA Live in Korea 2016 - Busan

일 시 | 2월 11일 목요일 오후 8:0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문 의 | (주)프라이빗커브 02-563-0595

2016 이미지 설잔치 In 부산

일 시 | 2월 14일 일요일 오후 2: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9만 9천원, R석 8만 8천원, S석 7만 7천원

문 의 | (주)하늘소리 1566-2505

2016 김광석 다시부르기

일 시 |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석 9만 9천원, R석 7만 7천원, S석 5만 5천원

문 의 |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올해로 생을 마감한 지 20주기를 맞는 우리시대 영원한 객(歌客) 김광석 추모콘서트 '2016 김광석 다시부르기'.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김광석을 위한 '2016 김광석 다시부르기'는 그의 노래가 더욱 그리워지는 계절, 김광석과 함께 청춘을 보냈던 지금의 중, 장년 세대들에게는 또 한번 깊은 울림의 무대를,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청춘의 한 페이지를 채워주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광석과 절친한 동료였던 박학기, 동물원, 여행스케치, 자전기 탄 풍경과 고인을 존경하는 유리상자, 정동하, 흥대광, 박시환 등 후배 뮤지션들이 출연해 거리에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랑했지만, 서른 즈음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등 그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재즈 와인에 빠지다 81st Concert 젠틀레인

일 시 | 2월 26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2만 5천원

문 의 |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623-0678

www.mudae.kr



한 달에 한 번 재즈와 와인 이 만나는 달콤한 무대 '재즈 와인에 빠지다' 81번째 무대.

모던한 재즈의 어법을 계승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따뜻한 멜로디, 정교한 하모니와 정감어린 인터플레이를 지향하는 재즈트리오 '젠틀레

인(Gentle Rain)'의 무대가 펼쳐진다.

지난 2004년 결성된 후 올해로 데뷔 11년째를 맞는 국내 최고의 재즈트리오 젠틀레인은 리더인 서덕원(드럼)과 송지훈(피아노), 김호철(콘트라베이스)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로, 그동안 서정적 멜로디와 우리네 삶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일상적인 주제의 곡을 선보여 왔다.

제프 버넷 3집 발매기념 내한공연

일 시 | 2월 14일 일요일 오후 6: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문 의 | ㈜밝은누리 1566-9621

2016 엠씨더맥스 8집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pathos'

일 시 | 2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2016 거미 단독 콘서트 'Feel the Voice'

일 시 | 3월 5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 9천원, A석 8만 8천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Event 행사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2월 13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클래식과 재즈 매니아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2월 무대.

[프로그램]

1부/자비네 마이어, 바이에른 방송 실내관현악단,

모짜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원헌 프렌츠레겐텐

2012 실황

오레곤, 레버쿠젠 재즈페스티벌, 2015

코도나, 안가바렉

2부/제58회 그래미어워드 재즈부문 소개, 데이빗

보워, 마리아슈나이더, 로버트글라스퍼등

아델, 로알알버트홀 공연실황, 2011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60회 시 낭송회

일 시 | 2월 23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0-8374-0626

서퐁짜리 오페라

제28회 러시아 음악 LP 감상회

일 시 | 2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서퐁짜리 오페라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서퐁짜리 오페라 서진식 010-4600-8541

...

중구 동광동에 위치한 오페라 전용감상실 '서퐁짜리 오페라'에서 마련한 제28회 러시아 음악 LP 감상회.

조영치와 원장으로 있는 클래식 애호가이자 러시아 음악 전문가인 조희영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감상회에서는 야니스 이바놉스(라트비아), 아르보 패르트(에스토니아), 미칼로유스 출리오니시(리투아니아) 등 발트 3개국 음악가들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강사/조희영(조영치와 원장)

Display 전시

BNK아트갤러리 초청 '김석호 書展'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2016년 2월 6일(토)

BNK아트갤러리

문 의 | BNK아트갤러리 246-8975

2016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

일 시 | 1월 2일(토)~2월 28일(일)

경성대학교 제1미술관

입장료 | 일반 1만 5천원, 어린이 2만원(1/31일까지)

구매시 어린이 1만 2천원, 일반 8천원)

문 의 | 위 플레이 02-548-5532

홍현주, La Chaise 라셰즈

일 시 | 2월 11일(목)~3월 11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생활공예작업으로 엔틱의 소중한 가치를 발전시켜온 홍현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엔틱 소재인 함, 뒤주, 고택문, 함자박 등에 크리스탈을 더하여 새로 우면서도 기품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소울아트스페이스 콜렉션

에바 알머슨 Eva Armise'n

일 시 | 1월 22일(금)~2월 19일(금)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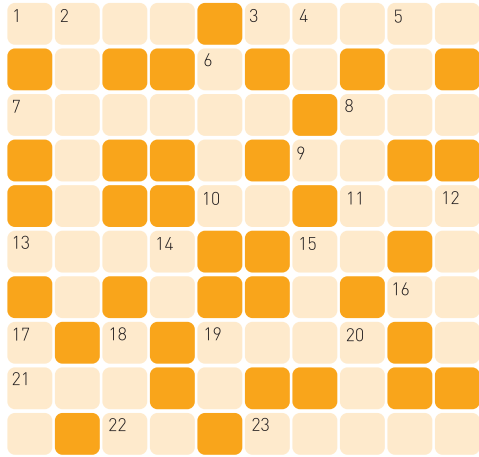
...

스페인 여류작가 에바 알머슨의 신작을 포함한 유화 15점과 판화 10여 점 등 총 2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소울아트스페이스 콜렉션 '에바 알머슨'.

동그란 얼굴에 까만 눈, 발그레한 볼 아래로 소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에바 알머슨의 작품은 유머를 겸비한 따뜻하고도 솔직한 메시지로 공감을 자아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미주 등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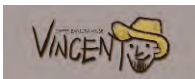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옐로인 플라워 | 080-337-3370
 조은극장 | 1588-2757 빈센트 커피 | 051-623-0772
 큰집 | 051-245-3320



BNK 부산은행 조은극장



옐로인 플라워



빈센트 커피

가로열쇠

- ① 비발디 '사계' 연주로 유명한 세계적인 실내악단. 2월 3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관객들과 만난다.
- ③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으로 음력 1월 15일.
- ⑦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낭만 희극으로 중세로망스, 중세서사시, 고전 신화 등에서 빌려온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랑의 고난과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주제를 아름답게 그려냈다.
- ⑧ 서양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한, 남유럽 발칸반도 남쪽 끝에 있는 나라. 수도는 아테네.
- ⑨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고대 한반도의 삼국 시대를 구성하였던 국가. 935년 경순왕을 마지막으로 고려에 스스로 복속하기로 하면서 56대 992년(서로국 포함)만에 멸망했다.
- ⑩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 행동, 직업 등을 나타내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의 뜻과 일치하는 뜻을 더해 만든 말. 멋○○, 겁○○, 고집○○ 등.
- ⑪ 차량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교차하는 도로들을 입체적으로 만든 시설.
- ⑬ 취업을 못해 부모에 의지해 살거나, 취직을 했는데도 임금이 적어 독립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
- ⑮ 중국 중서부 쓰촨성(四川省)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는 좁은 대나무숲에만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중국 정부는 특별한 우정의 표시로 이동물은 다른 나라에 주거나 팔려주고 있다.
- ⑯ 경기가 규칙대로 진행될수록 임팩트 강한 심판들 가운데 우두머리.
- ⑰ 2005년 등반 중 생을 마감한 동료의 시신을 찾기 위해 ○○○○○로 떠난 엄홍길 대장과 휴먼원정대의 실화를 그린 이석훈 감독, 황정민, 정우 주연의 영화.
- ⑱ 마당이나 실내의 넓은 공간에서 공연되는 새로운 연극형태로, 1970년대 이후 전통 민족극인 탈춤과 서구의 사실주의·서사극·표현주의 등 여러 극양식과 기타 인간의 연극 예술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여 만들어낸 한국 고유의 양식이다.
- ⑳ 같은 체급의 두 선수가 링 안에서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장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 치고 막고 하여 승부를 겨루는 운동 경기로 복싱이라고도 한다.
- ㉒ 1975년 베네수엘라 경제학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빈민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음악교육재단으로, 2008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 널리 알려졌다.

세로열쇠

- ②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참혹한 비극과 죽음, 인간의 따뜻하고도 애절한 사랑을 그린 미국의 소설가 헤밍웨이의 전쟁문학의 걸작.
- ④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가려지는 현상.
- ⑤ 오페라 아리아에 팝송을 섞은 팝페라라는 장르를 개척한 이탈리아 성악가. 12세 때 추구를 하던 도중 부상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나 굴하지 않고 성악공부를 시작, 1995년 새러 브라이트만과 부른 'time to say goodbye'가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 ⑥ 히틀러의 정치철학이 수록된 '나치즘의 바이블'로, 독일 제3제국의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사회학 금서로 낙인찍혔다.
- ⑧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자리한 도시로, 알람브라 궁전과 그 궁전을 지키는 알카사바 요새, 그리고 스텐들의 여름 별궁이었던 헤네랄리페가 있다. 지명인 ○○○○는 '석류'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
- ⑩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응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 ⑫ 한 기문의 계통과 할연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으로, 보첩(譜牒)이라고도 한다.
- ⑮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 온갖 고통과 악이 들어 있는 단자인 '○○○'의 상자로 유명하다.
- ⑰ 일본 나가사키 현(長崎縣)에 속한 열도. 일본과 한국을 가르는 대한해협에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한다. 장기 회원 테마여행 1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8일부터 이틀간 이곳에서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 ⑲ 중국 북파(北派)에서 발전한 무술 유파로 소림권(少林拳)과 함께 중국의 양대 권법을 이루고 있는 무술로, 물이 흐르듯 유연하고 율동적이며 신중함 동작을 이용한다.
- ㉑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청년문화.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을 시도했으며, 전후 기술주의와 업적주의 등의 문명맹신적인 문화에 대한 저항을 펼치고자 했다.
- ㉒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농사와 법의 주재신이면서 성모와 가정의 문을 지키는 신으로 앞뒤가 다른 두 얼굴을 가졌다. '시작의 신'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한 해의 첫달을 가리키는 'January(1월)'가 그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한다.

지난호 정답



1월호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김명희(남구 장고개로)
 초대권 김중철(동래구 복천로)
 박경선(수영구 수영성로)
 장은서(해운대구 해운대로)
 하명희(서구 구덕로)

옐로인 플라워 노경희(남구 유엔평화로)
 꽃다발 증정권 장보경(연제구 연제로)

빈센트 김성화(북구 금곡대로)
 더치커피 백영선(연제구 법원로)

큰집 고준영(부산진구 시민공원로)
 식사권 박혜란(서구 대신공원로)
 송희경(사상구 남정로)
 장진옥(부산진구 동평로)
 한보련(북구 화명신도시로)

조은극장 김가은(해운대구 윗반송로)
 초대권 윤신영(연제구 월드컵대로)
 이영숙(연제구 연제로)
 장원창(사상구 학감대로)
 최중수(동래구 사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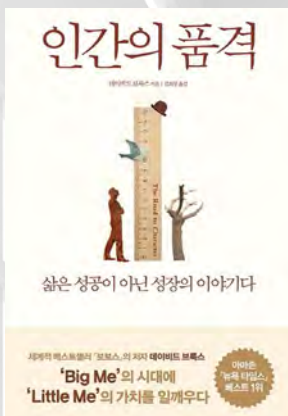
New BOOK... 박현주 북칼럼니스트



✦ 예술가의 서재

이하영 지음 / 페이퍼스토리 / 280p / 1만5천원

고흐의 그림 '의사 가세르의 초상'에는 책이 그려져 있다. 가세르 두 권의 책에 팔꿈치를 고인 채 나른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고흐는 왜 자신의 그림에 책을 그렸을까. 고흐는 책을 무척 열심히 읽었다. 또한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동생이나 친구들과 나누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권했다고 한다. 고흐의 독서와 편지 쓰기를 통해 구체화된 영감은 최종적으로 그림이 되었다. 고흐의 삶의 중심에는 책이 있었던 것이다. 방송작가이며 북칼럼니스트인 이하영 씨가 예술가의 서재를 들여다보았다. 저자는 고흐의 그림 '프랑스 책과 장미가 있는 정물'을 처음 접했을 때 그림 속 책의 제목을 알고 싶어 도록을 살펴보았지만 책에 대한 정보는 들어 있지 않았다. '고흐가 읽은 프랑스 책'에 대한 궁금증은 '예술가들은 어떤 책에 매혹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저자는 베토벤, 고흐, 고갱, 톨스토이, 찰리 채플린, 이사도라 던컨, 제임스 딘, 헤밍웨이, 프리다 칼로 등 책을 사랑했던 많은 예술가들의 서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저자가 음악·미술·문학·사진 등 각 분야의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 그들이 읽었던 책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답사하여 쓴 책.



✦ 인간의 품격

데이비드 브룩스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496p / 1만6천5백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풍자적인 문체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 저자는 기존의 엘리트 계층이 관습·제도·가문 등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 성공한 것과는 달리, 이제는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공 신화를 이룬 신흥 엘리트 계층인 '보보스'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저서 〈보보스 :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로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됐다. 〈보보스〉에 이어 이번에 펴낸 책 〈인간의 품격〉은 인간의 삶이란 결함 있는 내면의 자아와 끊임없이 투쟁하며 성장하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가치도 목살하고 마는, 혹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세속적 가치에만 방점을 두는 오늘날의 세태가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그동안 자기에게 빠진 때버리가 되어 실제보다 더 권위 있고 영리한 척하는 것으로 돈을 벌어 왔다고 고백한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반세기 전 사람들에 비해 지나치게 물질주의와 능력주의에 경도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제 '빅 미'가 아니라 겸손, 절제, 헌신으로 대변되는 '리틀 미'의 가치를 회복할 때라고 주장한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후영 지음 / 상상출판 / 368p / 1만6천5백원

전업 여행작가 김후영 씨가 직접 세계문화유산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글을 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20년이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지구본을 가지고 놀았을 정도로 세계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시절에는 학기마다 배낭여행을 다녔고, 졸업과 함께 더 멋진 세계를 누비고자 전업 여행작가가 되어 국내 다양한 잠시매체에 여행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전 세계 125개국을 여행한 저자는 이 책에서 꼭 알아둬야 할 세계문화유산 58곳을 소개한다. 세계문화유산은 인류가 창조한 유산 중 역사적, 미적 가치가 출만 해 온 인류가 관리·보호·보존에 힘써야 하는 것들을 유네스코가 엄선해 지정한 것이다. 그만큼 세계문화유산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주며, 여행가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다. 세계최고의 여행자인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지도를 전면 배치하고 각 유산에는 국가, 위치, 등재 연도의 기본 정보와 간단한 지도를 수록했다. 또한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저자가 직접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이 책 속에 녹아 있어 20년간의 흔적과 그 노력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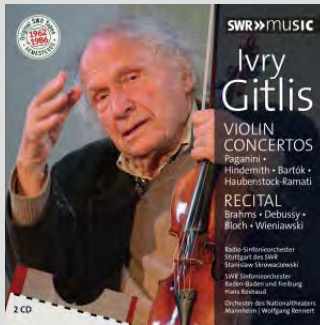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21번, 27번

루돌프 부흐빈더(피아노 겸 지휘),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 부흐빈더, 자동차 공장에서 모차르트를 연주하다.

2016년 12월에 칠순이 되는 지휘자 루돌프 부흐빈더는 예전부터 베토벤과 모차르트 해석의 최고 권위자로 꼽혀 왔으며, 고전파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은 지휘까지 겸해 연주한다는 철칙을 고수하는 드문 연주자이다. 이 DVD는 2015년 6월 15~17일에 걸쳐 드레스덴에 있는 폴크스바겐의 '유리 공장'(Die Gläserne Manufaktur)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담은 것이다. 여기서도 그는 세 곡 모두 독주와 지휘를 겸해 연주하며, 절정에 다다른 원숙함으로 단정하고 명료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주를 들려준다.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는 일찍이 지휘를 겸하는 독주자에게 부여하는 칭호인 'Capell-Virtuos' 칭호를 맨 처음으로 부여했던 부흐빈더의 지시에 충실히 따라 연주하고 있다. 3분여의 보너스 영상에는 연주장소인 폴크스바겐 공장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기까지의 준비 과정, 다시 말해 자동차 공장이라는 이질적인 공간이 훌륭한 연주회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이브리 기틀리스 SWR 방송 녹음(1962~1986)

이브리 기틀리스(바이올린) 외

▶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전성기를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음반

20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아마도 가장 개성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브리 기틀리스가 전성기인 1962~86년에 걸쳐 남서독일 라디오 방송에 남긴 방송 실황 연주가 최초로 두 장의 음반에 묶였다. 기틀리스의 장기였던 파가니니, 드뷔시, 비에냐프스키 등의 비르투오조 피스는 물론, 힌데미트와 버르토크의 협주곡 등 협주곡과 실내악 레퍼토리를 망라하고 있으며, 어느 곡에서나 집시적인 느낌마저 살짝 풍기는 요염한 음색과 폭발적인 음색이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다.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전성기를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음반이다.



드비엔 플루트 4중주, 바순 4중주

무지카 레알레

▶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실내악-독주 연주를 담고 있는 'First Chairs' 시리즈
2008년 영국 클래식 전문잡지 '그라모폰'이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선정한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실내악-독주 연주를 담고 있는 'First Chairs' 시리즈의 또 다른 매력적인 음반이다. 프랑스 작곡가 프랑수아즈 드비엔의 실내악곡, 특히 플루트 4중주와 바순 4중주를 담고 있다.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프랑스 음악은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로 알려지지 않은데, 바순과 플루트의 명수였던 드비엔은 그 대표적인 작곡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실내악곡은 프랑스 음악 특유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고전적인 균형미를 갖추고 있다. 구스타보 누네스 등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실내악적인 화합과 따뜻한 음색도 대단히 아름답다.

Spacial Movie...



나루세 미키오 특별전

영화의전당이 2016년 첫 기획전으로 마련한 '나루세 미키오 특별전'이 2월 10일까지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펼쳐진다. 빛을 통해 등장인물의 움직임과 시선을 섬세하게 다룬 탁월한 연출력을 선보였던 나루세 미키오는 일본 거장 감독들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었지만 오즈 야스지로, 미조구치 겐지, 구로사와 아키라에 이은 일본의 4대 거장으로 칭송받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루세 미키오는 무성에서 유성, 흑백에서 컬러의 시대를 거치며 총 89편의 작품을 연출하며 나약함과 강인함, 정숙함과 정념을 동시에 지닌 아이러니한 여성 주인공들을 통해 감정의 심연과 삶의 근원적 슬픔을 영화적으로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영화의전당 필름 아카이브가 수집한 나루세 미키오 감독의 필름영화 12편과 1930~40년대 작품을 비롯해 그동안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작품 17편 등 총 29편을 소개하는 자리로,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재치 있으면서도 정직하게 담아낸 화면에 삶의 씩씩함과 비애가 절절히 배어들게 했던 위대한 거장 나루세 미키오의 주요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상세한 일정은 영화의전당 780-6000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www.dureraum.org 참조.



영화 '동주'

이름도, 언어도, 꿈도 허락되지 않았던 1945년, 평생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빛나던 청춘을 그려낸 영화 '사도'의 이준익 감독의 신작 '동주'가 개봉한다.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 동주와 몽규. 시인을 꿈꾸는 청년 동주에게 신념을 위해 거침없이 행동하는 청년 몽규는 가장 가까운 벗이면서도,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진다.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떠나 일본 유학 길에 오른 두 사람. 일본으로 건너간 뒤 몽규는 더욱 독립 운동에 매진하게 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시를 쓰며 시대의 비극을 아파하던 동주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진다. 암흑의 시대, 평생을 함께 한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끝까지 않은 이야기가 영화 '동주'를 통해 시작된다. 이번 영화에서는 실제로도 절친인 배우 강하늘과 박정민, 두 청춘 배우가 주연을 맡아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가슴 먹먹한 감동을 선사한다. 영화 '동주'는 오는 2월 18일 개봉예정으로, 12세 관람가이다.



에른스트 루비치 특별전

할리우드 클래식 코미디 영화의 거장 에른스트 루비치의 작품세계를 조명해보는 '에른스트 루비치 특별전'이 2월 11일부터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펼쳐진다. 독일 출신으로 무르나우, 프리츠 랑과 함께 독일 초기 영화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에른스트 루비치는 많은 독일 표현주의 감독들이 그랬던 것처럼 1922년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 세실 B. 드밀과 폰 스트로하임 등과 함께 1920년대 할리우드 전성기를 구가했다. 할리우드에서 매우 우아하고 매혹적이며 유행과 기지로 가득 찬 코미디 영화를 만들면서 예술적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동시에 거둔 에른스트 루비치 감독은 이후 빌리 와일더, 하워드 호스, 레오 맥커리 등 할리우드의 수많은 감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의미심장한 재치 있는 대사과 독특한 시각적 풍자가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펼쳐지는 루비치의 섬세한 코미디는 '루비치 터치'라는 트레이드마크로 불리며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에른스트 루비치 특별전'은 3월 6일까지 계속되며 자세한 상영일정은 영화의전당 전화 780-6000, 홈페이지 www.durera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Spacial Event...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영화 특강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의전당에서는 영화비즈니스를 꿈꾸는 영상인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영화 프로듀서, 홍보마케팅 특강'을 2월 한달간 마련한다. 영화기획 및 투자에서부터 후반작업에 이르는 영화 프로듀서 직무 전반과 홍보마케팅 컨셉에서의 실행 전략 등 홍보마케터의 업무와 역할, 부산 독립영화 환경에서의 프로듀싱 과정 등을 내용으로, 영화제작사 '사나이픽처스' 대표 한재덕, 영화홍보사 '호호호비치' 대표 이채현, '앙양필름' 대표 양명숙 등 3명의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강좌는 1월 30일부터 2월 21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2시부터 영화의전당 비프힐 2층 강의실 B에서 진행된다. 2월 13일부터는 영상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와 특수장비들의 활용을 배우고 그 장비들을 직접 운용해 보는 전문 실습 강좌 'HD 카메라와 특수장비 워크숍'이 열린다. 영화 현장 전문가들의 특수 촬영 장비 교육을 통해 최신 촬영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로, 촬영감독 정성욱이 강사로 참여한다. 3월 20일까지 매주 주말 오후 2시 영화의전당 비프힐 2층 강의실 B에서 열린다. 두 강좌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문의는 영화의전당(780-6112, 6116, 6118, www.dureraum.org).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클래식음악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 곽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곽근수의 맛있는 클래식' 2월 강좌가 2월 16일 저녁 8시 무지크바움에서 열린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월간 객석, 음악저널 등을 통해 평론활동을 펼쳐온 곽근수는 그동안 5천여회가 넘는 다양한 음악회에서 클래식음악의 이해를 돕는 해설가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세번째로 마련되는 '고음악 연주' 제3강에서는 고음악의 한 축을 이끌고 있는 카운터테너 거장들의 연주세계를 탐구한다. 카스트라토의 전성기 때인 18세기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 목소리가 묘한 신비감을 주면서 당시 정상급 카스트라토의 인기는 요즘 영화배우나 오페라 가수들을 능가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었다. 오늘날에는 거세가 아닌 후천적 훈련으로 알토의 음역을 노래하는 카운터테너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고음악 열기의 한 축을 이끌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르네 야콥스, 알드레아스 솔, 필립 자루스키 등 카운터테너 거장들과 고음악계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격찬받고 있는 소프라노 임선혜의 작품세계를 알아본다. 입장료 균일 1만5천원, 문의는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부산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관련 미술자료 수집

2018년 3월 20일 개관 2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내년에 마련하는 특별전 '부산 근, 현대 미술문화'전(가칭)을 준비하면서 관련 미술자료를 수집한다. 이번 '부산 근, 현대 미술문화'전은 개항기부터 근대 산업화까지 부산미술을 총 망라한 뜻깊은 전시로, '개항기-일제강점기 근대문화의 현관, 부산미술', '광복-임시수도기간의 한국미술의 중심, 부산미술', '근대 산업화와 전후 부산현대미술'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3개 부문 전시 주제와 관련된 미술품이나 미술 관련 자료(작품, 작가나 작품이 소개된 사진, 편지나 일기, 관련 도서 및 잡지, 신문 스크랩 등)를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740-4255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공개채용 공고

1. 채용부문·인원·전형내용

구분	채용부문	인원	전형내용
부산시립 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서류 및 실기 (이력서, 작품기획(안), 안무작품 동영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발표 : 2016. 2. 18(목)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2. 24(수) 14:00 / 부산문화회관 1층 회의실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실시

※ 일정은 회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 자(남자의 경우)
- 무용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3.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16. 1. 12(화)~1. 28(목)
- 접수기간 : 2016. 1. 29(금)~2. 4(목)
- 교 부 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Main.bs>) 공고란
- 접 수 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42)
(우48534)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내 2층 공연팀(인사담당)
- 안내사항 : 공휴일·토·일요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17시00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4. 최종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6. 3. 4(금),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 일정은 회관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5. 문 의 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Main.bs>)의 공고란 참조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2)

2016 부산시립예술단 비상임 단원 모집안내

1. 분야별 모집인원

구 분		모집부문 및 인원
총 계		총 30명
교향악단	비상임단원 (10명)	• 바이올린 2, 비올라 1, 첼로 1, 호른 1, 트럼펫 2 트롬본 1, 튜바 1, 타악기 1
국 악 관현악단	비상임단원 (5명)	• 피리 1, 해금 1, 경기민요 1, 타악기 1, 신디사이저 1
합 창 단	비상임단원 (5명)	• 소프라노 2, 알토 1, 테너 2
극 단	비상임단원 (10명)	• 배우 10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남성의 경우)
※ 원서접수일 현재 1년 이상 비상임 단원 재직 경험이 있는 자는 응시불가

• 교향악단 · 합창단

- 해당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16.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재학생, 휴학생 제외)

• 국악관현악단 · 극단

- 해당 전공분야 2년제 대학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16.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재학생, 휴학생 제외)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화) ~ 2. 12.(금) 17:00(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팀(대표) 051-607-6044
교향악단 607-6045 / 국악관현악단 607-6041 / 합창단 607-6046 / 극단 607-6042

※접수 전 반드시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busan.go.kr>)의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 부산문화회관 예능아카데미



클라리넷 이민호



클래식 기타 고충진



가야금 오은영



사물놀이 전학수

2016 예능아카데미 시간표

월요일 19:30 클라리넷 입문반 | 19:30 사물놀이

화요일 16:30 가야금 고급반 | 18:00 가야금 입문반 | 19:30 가야금 초중급반

수요일 19:30 클라리넷 초중급반

금요일 14:00 클래식 기타 입문반 | 16:00 클래식 기타 초중급반

※ 교육일정과 강습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 강 료: 10만원~15만원(정기회원의 경우 10% 할인 적용)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커뮤니티 게시판

※ 전화접수는 접수기간이후의 미달된 강습에 한함

결제방법: 카드결제-전화(607-3102-4) 또는 방문(사무국 홍보팀)

계좌입금부산은행 101-2021-2628-04 문화회관아카데미

2016 예능아카데미 | 2016. 3. 1(화) ~ 3. 25(금)
2기 신청기간 | 개강일 4월 4일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 051)120

문의 051)607- 3102~ 4

음악영재 아카데미

모집안내

- ♪ 모집 부문 : 기악전공 -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 ♪ 지원 자격 : 초등 1학년~중학교 2학년까지(예술중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제외)
- ♪ 모집 정원 : 6명 내외

오디션 세부일정

- ♪ 접수 기간 : 2015년 12월 14일(월)~2016년 2월 14일(일)
- ♪ 접수 방법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
- ♪ 일 정 : 2016년 2월 20일(토), 11:00
- ♪ 장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 ♪ 내 용 : 자유곡 1곡 연주, 반주자 필요시 동반, 악보 1부 제출

학기 및 학습방법

- ♪ 학사 일정 : 2016년 3월~7월(1학기), 8월~12월(2학기)
- ♪ 강습 방법 : 1:1개인레슨, 50분
- ♪ 수 강 료 : 학기별 75만원(15회)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 ♪ 마스터클래스
- ♪ 향상(평가)음악회
- ♪ 음악영재콘서트

※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참조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 제공

문화생활의 필수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 우수(7일)
- 골드회원 초대권 2매 증정
 -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예술단 5개단체(정기·특별연주회) 중 선택
- 부산시내 공연장 정보를 담은 월간지 “예술에의 초대” 무료 우송
- 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정보제공(SMS)
- 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10~30%)
- 예술단 5개단체 기획공연·정기연주회·특별연주회 관람료 할인(10~30%)
 -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단체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과 협의된 공연 한함)
- 문화대학, 시민예능교실, 예술·예능아카데미 등 수강료 할인
- 예술단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가 있는 여행
- 할인쿠폰발행
 - SKY하늘안과, 공간소극장, 모차르트,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필하모니, 하나돈가스(센텀점), 새날한의원(광안점/해운대점), 카페 빈센트(대연점/범일점), 메가박스(서면점), 안경나라(동래점), 옐로인플라워(본점/대연혁신점) 등 ※ 업체사정으로 변경 가능

회원종류

- 골드회원 : 50,000원(4매 할인)
- 블루회원 : 30,000원(2매 할인)
- 그린회원 : 20,000원(1매 할인)
 - ※ 할인 : 20명(10%), 30명(20%), 50명(30%)
- ※ 주의사항
 - 입장권 예매취소는 공연하루 전 17:00까지(당일취소 불가)
 - 입장권 예약하고 3일 이내 미입금 시 예매취소
 - 정기(유료)회원 가입결제 5일 이후 취소 불가



관람권 예매

- 예매방법 : 전화(607-3100) 또는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 무통장입금 : 부산은행 036-01-034848-7(예금주/부산문화회관)
- 수령방법 : 정기회원카드 또는 예매확인증 지참(매포소 제시)

자주하는 질문

- 어떤 공연을 볼 수 있나요?
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공연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연관람 예약을 하고 관람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연 예약 시 좌석을 지정하기 때문에 공연 당일 공연관람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약 문화 정착을 위해 공연 관람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관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연 하루 전날 오후 5시까지 예매 취소 가능

가입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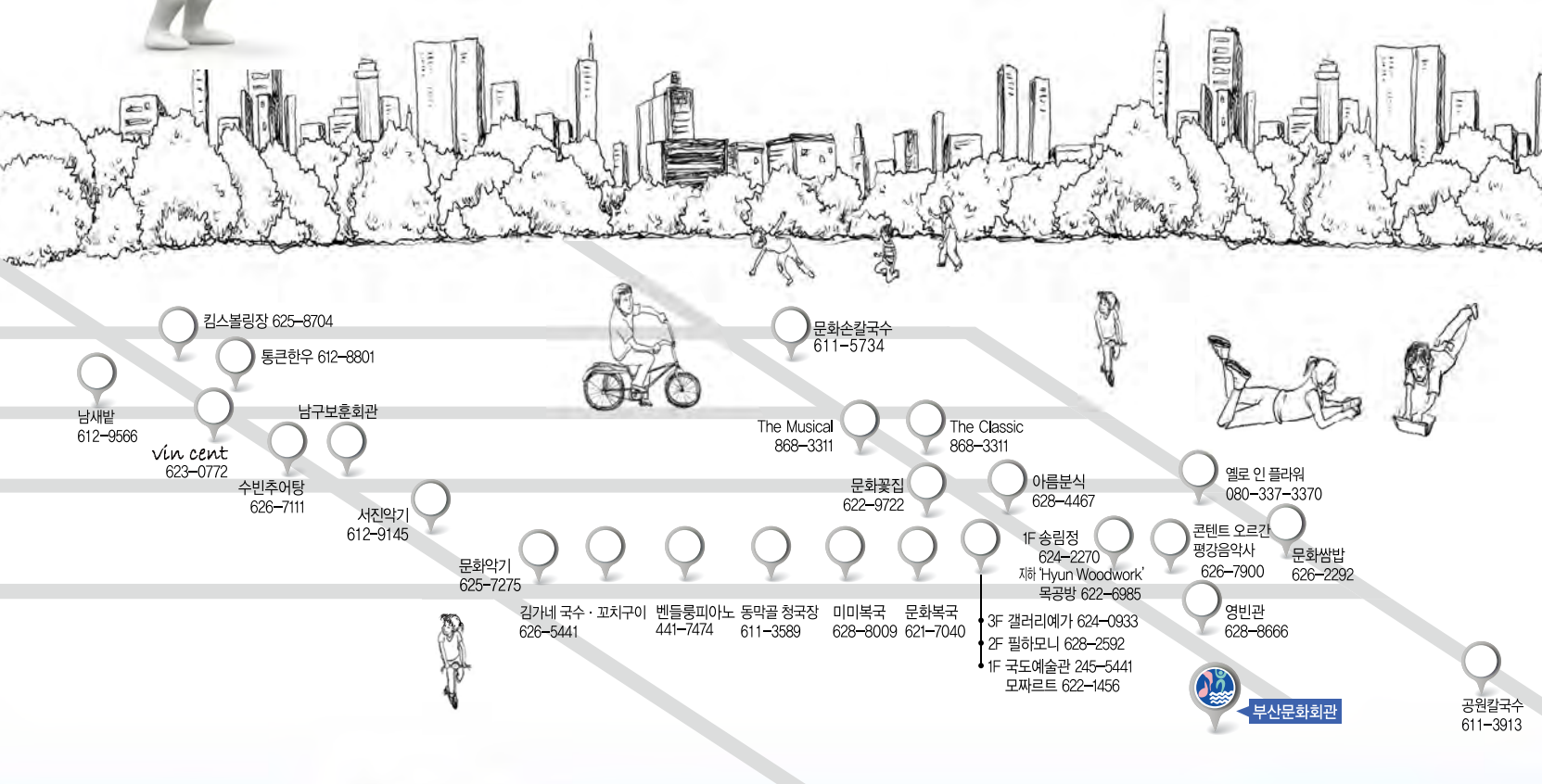
- 예술단사무국 홍보팀(051-607-3100, FAX 051-607-3109)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교통편

- 지하철
지하철 2호선 대연역 하차, 5번출구로 나와서 유엔 교차로쪽으로 도보 10분거리
- 버스
51번(용당 - 문화회관 - 구서동) / 68번(용당 - 유엔공원 - 서면 - 하단)
134번(용당 - 유엔공원 - 고신대학교) / 138번(용당 - 유엔공원 - 장림)
-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김해,마산,창원) - 동서고가도로를 이용, 감만동에서 진입
경부고속도로(대구, 울산) - 도시고속도로를 이용, 대연램프로 나와 대남지하차도를 이용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것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Tel. 051)622-1456</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p>
<p>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Tel. 051)626-2592</p>	 <p>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옐로인 플라워 꽃상품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입구 본점 080-337-3370 대연혁신점 627-125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 시 디럭스 객실 정상가 300,000원 → 할인가 99,000원 (세금포함/조식불포함/성수기 기간 제외) 예약문의 : 051)678-1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p>
 <p>부산문화회관 & 굿월치과병원 협약기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덕천 하단 서면 덕천 330,6000 하단 209,6015 서면 606,6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50-05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929-5000</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819-0173</p>
 <p>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상품 20%할인 (일부품목제외) 안경나라(동래점) 051)505-8987</p>	





이무지치 iMUSICI

신년음악회 'Concerti Romani'

Castrucci 카스트루치 Valentini 발렌티니 Corelli 코렐리 Vivaldi 비발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6.2.3(수) PM 7:30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티켓.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공연문의. 051-607-6066

이_寧
월_越
행_行
일_日
기_記

진정한 자유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좌절

예술감독 **곽종필**

작가 **이강백**

연출 **허영길**

조당전 **이혁우**

염문지 **황창기**

김시향 **이현주, 염지선**

부천필 **김은희, 오희경**

이동기 **서보기**



2016. 3. 12 | 토 - 18 | 금 평일 7시 30분, 토일 5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전석 1만원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문의 607-3107



THE 175TH
ANNIVERSARY OF
TCHAIKOVSKY'S BIRTH

제15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 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16. 2. 29월 PM 7:30

슈베르트 | 아르페지오네 바흐 | 사콘느 차이코프스키 | 피아노 트리오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티켓.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공연문의.051) 607-6065
조기에매 할인 10% / 2월 10일까지 / 정기회원, 학생, 예술인패스, 다자녀가족, 단체 10매 이상 20%